

할렐루야 늘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은 변하고, 세대가 바뀌지만, 여전히 악하고 어두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깨어서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3년 7월 29일 (토) 제 1930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TGC, 절망의 시대를 이기는 기독교 변증

현대의 절망을 이해하고, 복음의 충만함, 아름다움을 담대히 선포하라!

C. S. 루이스가 쓴 그 가공할 힘에 나오는 마크는 자신의 삶을 "먼지와 부서진 병, 오래된 강퍽 더미와 건조하고 숨 막히는 곳"으로 묘사한다. 아내와 함께 마크는 근대성이 의인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의 신념은 오늘날 많은 세속인을 대표한다. 하지만 플롯 속 사건을 통해 점차 초월성에 눈을 뜨기 시작한 마크는 투옥되어 심리적 고통을 받는 동안 심오한 도덕적 경험을 한다.

『신맛과 비뚤어짐을 배경으로 달콤함과 웅바름에 대한 어떤 비전이 일어났다. 그가 막연하게 "정상"이라고 부른, 뭔가 다른 것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는 이전에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게 거기에 있었다. 단단하고 육중하며 고유한 모양까지 갖고 있어서 만지거나 먹을 수 있거나 심지어 사랑에 빠질 수도 있을 거 같았다. 그것은 제인과 달걀부침, 비누, 햇빛, Cure Hardy에게 껌껌대는 당까마귀, 그리고 그 순간 바깥 어딘가에서 햇빛이 비치고 있다는 생각과 뒤섞였다.』

내가 쓴 글에서 종종 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논증을 만드는 맥락에서 이 구절을 사용했다. 그러나 보다 더 일반적으로 볼 때, 이것은 현대의 절망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교리(또는 객관적 선 개념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의 한 가지 함축)로 극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랍도록 창의적인 문학적 표현이다. 많은 후기 현대인에게 복음을 접하는 것은 "건조하고 숨 막히는 곳"에서 "달걀부침과 비누와



햇빛"으로 전환하는 경험이 될 것이다. 평탄함에서 충만함으로, 환멸에서 새로운 매혹으로, 회색빛 칙칙한 세상에서 생명과 색깔로 가득한 세상으로의 전환처럼 느껴질 것이다.

현대의 절망을 이해하라

찬사를 받은 저서 A Secular Age(세속 시대)에서 찰스 테일러는 현대 시대의 환멸과 의미 상실의 문제에 주목했다. 이 현상은 역사적으로 최근에 발생했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이 문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지만, 오백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겐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전근대인도 분명히 절망을 느꼈겠지만, 일반화된 절망감은 후기 근대 서구를 특징짓는 독특한 역사적 발전이다. 테일러에게 그러한 절망은 특히 초월의 쇠퇴와 자아 개념의 변화라는 또 다른 형태의 발전이 가져다준 결과이다. "우리의 행동, 목표, 성취 등등에는 아무래도 무게와 중력 그

리고 무게와 실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는 절망이다.

현대 절망의 본질을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복음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희망을 가시화할 수 있는 신선하고 흥미로운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전통적인 초월의 근원에서부터 점차 스스로를 단절시킨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의 경험은 종종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큰 황량함과 환멸감을 특징으로 한다. 자각하지도 못한 채 절망을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 문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항상 접하는 문화를 평범하게 느끼는 건 당연하다. 문화는 멀리서 바라보는 풍경이 아니라 통해서 보는 안경이다. 예를 들어, 대학에 가기 전까지는 자기 가족이 여기는 가족이었음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던 어떤 십대처럼, 실제

로 대안을 경험하기 전까지 우리는 "건조하고 숨 막히는 곳"에서 살고 또 그 안에서 움직였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답이 되는 기독교에서 팀 켈러는 현대인 대부분이 너무 불행하기에 불행의 본질을 완전히 깨닫는 데에 몇 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대체로 우리는 깊이와 크기 또는 불만을 부정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가장 신랄하게 이야기하는 예술가와 사상가는 병적인 예외로 간주되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내는 건 예언적 목소리이다.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불만의 크기와 차원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심리부터 버려야 하는데, 거기에 보통 몇 년이 걸린다. 절망의 문제는 실존주의 철학이 중점적으로 집착한 것들 가운데 하나이다. 많은 "새로운 무신론자"(예를 들어 샘 해리스)는 보다 활기차고 낙관적인 무신론의 소유자이다. (3면으로 계속)



TGC, 교회는 AI를 내칠 것인가 끌어안을 것인가?

최근에 AI는 보통 사람들의 의식에까지 침투했다. 처음으로 ChatGPT의 언어 슬롯 머신이 가동되었고, 어려운 질문에 놀라운 정도로 좋은 답변을 내놓았다. 수십 년 전 생산직 근로자가 겪은 일을 지금 사무직 근로자가 그대로 경험하고 있다. 진짜 적은 비용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대로 해내는 기계가 등장했다. 때론 가까운 정도로 격렬한 경고음이 전 세계 문화에 걸쳐 울렸다. ChatGPT 이전에 AI에 대해 전혀 몰랐던 직업 사상가들도 너도나도 앳다투어 소셜 미디어와 팟캐스트에서 최신 정보를 공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사상가들은 전혀 다른 방식을 취했다. 그들은 AI가 만들어갈 생성 가능성을 즐기며 세상을 바꾼다고 약속하는 새로운 AI 제품의 가내 산업을 시작했다.

고작 몇 달 사이에 AI와 관련해 서 그리스도인은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었다. (1) 생성 AI가 일자리를 빼앗고 영적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비판적 입장. (2) AI가 목회자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실용주의 입장이다. 급속한 기술 양극화는 하나도 놀라운 게 아니다. 그러나 그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AI에 관해서 계속해서 글을 썼다. 대부분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윤리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면, 생성 AI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점점 더 커졌다. 그렇다고 내 속에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쯤 생소하기만 한 기술 전쟁에서 한 쪽 편을 선택하는 대신에 잠시 멈추고 대화하고 또 생각할 때이다. 잠언 저자의 말이 옳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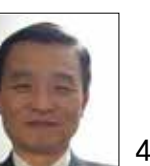
(9면으로 계속)



시론 이동진 목사



3면 푸른초장 박신용 목사



4면 인터뷰 윤임상 교수



16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 퍼 스 | 온 라 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양)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설교세미나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핵심 기법

(Essential Skills for Text-Driven Preaching)

시 간 : 8월 14일(월) 오전 9시-오후 3시
장 소 : 퀸즈한인교회 바울성전

등록비 : \$30 점심과 저자의 책(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제공

등 록 : <https://forms.gle/ya6XUcUfruKhhnJ8>

문 의 : 정관호 목사(917-750-8174) 이문범 목사(347-256-1477)
* 50명 인원 제한

주최: 뉴욕목사회

후원: 합신동문회 | 퀸즈한인교회

권 호 목사

현) 합동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
사랑의교회 협동목사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공동대표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 설교학 겸임교수
로델교회 담임목사 역임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 박사(Ph.D.)
고든 콘웰신학교 신학석사(Th.M.)
총신대학신학대학원(M.Div.)

저서

《본문 중심의 말씀 목상》, 《보이는 내러티브 설교법》,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플랫폼》,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작성법》,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새강해설교》, 《비상-영성적 전문성으로 날아올라라》, 《바울이 세상에》, 《성령의 삶 Plus 및 목회와 신학》



발행인 칼럼

품음과 혼냄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지도자로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필자에게는 결정(決定)이다. 결정하는 일만 없다면 리더는 해 볼만(?) 하다. 무엇이든 결단해야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다. 그 결정의 결과가 내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서 더욱 그렇다. 지도자의 고독한 결단의 시간은 누구도 갖지 못할 영광을 누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결과와 철저한 책임을 기다려야 하는 힘든 시간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지도자의 결정은 그가 섬기는 공동체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곡점(變曲點)이 된다. 그러기에 무엇인가의 결정에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시간을 '기도해 보고 결정 하겠습니다'라고 격조 높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충분한 기도 시간을 갖지 못하고 순간적인 판단과 행동을 해야 할 때도 종종 있다.

얼마 전 피택자 훈련하는 가운데 피택자들이 성경 읽는 것을 공개적으로 체크하는 시간이 있었다. 피택자 중에 연륜이나 경륜이 가장 앞서 있는 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였다고 고백하였다. 순간적으로 그를 혼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그 순간에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따뜻하게 그를 품어 주면서 다음에는 잘 해오시라고 말 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사실 그는 뜨거운 여름에 더 뜨거운 비즈니스 현장에서 매일 녹초가 되도록 일하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그때 그를 품어주는 것이 더 필요한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그를 혼내주는 것을 선택하였다. 필자의 다그치는 혼냄에 당사자도 놀랐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피택자들도 적잖이 경직 되었다. '아차차!'

필자보다 오랫동안 이민교회를 섬겨 오신 분들이 더 많으시지만, 필자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섬겨왔다. 그럼에도 이민자의 애환(哀歡)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은 미안함에 '아차차!'라는 탄식이 흘러나온 것이다. 이민자란 누구인가. 그 언젠가 많은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고 물 건너 산 건너 이역만리(異域萬里) 낯선 땅에 와서,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 불안정한 신분과 생업,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스스로의 앞날과 자녀 교육의 고통을 눈물겹게 감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가. 그래도 교회를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목회자를 위로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십분(十分) 이해하고, 헤아리고, 공감해야 할 자들이 이민교회 지도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것을 무조건 품어서야 되겠는가.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 칭찬하시는 모습도 있고 혼내시는 모습도 있지 않으신가.

돌이켜 보니 지금까지 수많은 지도자를 만났다. 그들 중에는 무관심 했던 분, 격려해 주신 분, 비교했던 분, 용서해 주신 분, 품어 주신 분, 혼내 주신 분 등 많은 지도자를 만났었다. 가장 영향력 있었던 분들은 필자를 품고 또 품어 주었던 분들이고, 가장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분들은 나를 가장 많이 혼내 주신 분들이다. 나를 품어 주신 분들, 내게 혼내셨던 분들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초점 없이 건설적으로 살았을 것 같다. 필자가 혼내 주었던 분과 만나 이야기했다. 그분이 그랬다. '그날의 상황은 제가 원인 제공자였기에 죄송합니다.' 나는 그랬다. '힘드신 여름을 보내고 있으신데 좀 더 따뜻하게 말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필자가 지도자로 있는 한 품음과 혼냄의 상황은 또 올 것이다. '주여, 그러할 때, 선택을 잘할 지혜를 주옵소서'

숙면하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취미가 뭐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나는 "딱 하나, 낮잠."이라고 대답하곤 했다. 그런데 이 말이 오히려 들어서 단지 농담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 퇴근 후 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대신 두 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그런데도 피곤이 풀리지 않아서 토요일에는 어김없이 낮잠을 잤고, 또 주말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낮잠을 잤다. 그런데 그건 상황을 악화시켰다. 자도 자도 항상 피곤해하는 내가 혹시 계절성 정서 장애(SAD)나 겨울 우울

증 같은 병이 있는 건 아닌지, 아내가 의사를 만나보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내게 문제가 된 것은 만성으로 굳어져 버린 나쁜 수면 습관이었다.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굳이 의사까지 만날 필요가 없었다. 젊었을 때는 카페인으로 나를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 더는 이 문제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나쁜 수면은 가족과 직장, 신체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나의 영혼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잠, 영성 훈련

시편에서 다윗은 평화로운 잠이 믿음의 행위이자 겸손의 표시임을 보여 준다. 다윗은 "내가 누워 곤하게 잠 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시 3:5-6)라고 했다. 또한 "내가 편히 눕거나 잡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시 4:8)라고도 고백했다. 숙면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잠은 믿음과 겸손의 표시이자, 동시에 영성 훈련이라고 D.A. 카슨은 말한다.

우리가 이 우주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경건한 일이 숙면을 취하는 것이다. 철야 기도나 아니라 잠을 자는 것이다. 밤새도록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영성 훈련을 하려면 몸이 제대로 된 숙면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영성 훈련과 마찬가지로 가장 효과적인 숙면을 위해서도 태도뿐 아니라 습관의 변화까지 필요하다. 다음은 휴식이라는 영적 활동을 더 잘 발전시키기 위해 내가 배운 몇 가지 사항과 실제적인 실천 단계이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휴식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밤 얼마나 오랫동안 잤는가이다.

사람마다 수면 시간은 다르며 또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일생을 두고 변한다. 그러나 당신이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한 침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양의 수면을 지금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나이에 따라서 매일 필요한 평균 수면 시간이다.

- 6-13살: 9-11 시간
14-17살: 8-10 시간



- 18-25살: 7-9 시간
26-64살: 7-9 시간
65 이상: 7-8 시간

당신에게 필요한 수면의 양은 주로 유전적 구성에 기인한다. 그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통계를 참고해 말하자면, 잠을 적게 자도 별문제가 없을 그룹에 당신이 속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조금 자도 괜찮아 식의 농담은 그만두고 실제로 필요한 수면 시간을 계획하라.

밤에는 블루라이트를 피해야 한다. 우리 몸에는 잠들 때와 일어날 때 영향을 미치는, 흔히 일일 주기 리듬이라고 알려진 자연 시계가 들어있다. 호르몬 멜라토닌을 언제 생성하는지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일일 주기 리듬이다. 멜라토닌 수치는 잠을 준비하는 저녁 중반에서 늦은 저녁 사이에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밤 시간 내내 높은 수치가 유지되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기 직전에 떨어진다.

멜라토닌 수치를 방해하는 한 가지 요인이 빛, 특히 스펙트럼의 파란색 파장 영역에 있는 블루라이트이다. 하버드 대학의 신경과학자 앤-마리 쉐은 이렇게 설명한다. "과거 연구에 따르면 빛은 멜라토닌을 억제한다. 이른 저녁에 접하는 많은 양의 빛은 일일 주기 지연을 일으켜서 생체 시계를 야에 나중 시간으로 재설정한다. 마찬가지로

이른 아침에 접하는 빛은 생체 시계를 앞당겨서 이전 일정으로 재설정한다."

당신과 눈과 뇌에 가장 많은 블루라이트를 쏘아대는 게 무엇인지 아는가? 맞다. 취침 전에 사용하기 좋아하는 모든 기기이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TV. 취침 전에 블루라이트를 방출하는 전자 장치를 사용하면 뇌는 명령한다. "멜라토닌을 분비하지 마라. 해가 났고 이제 일어나야 할 시간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취침 전에 이런 장치들 야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게 항상 가능하지는 않다. 다행스럽게도 노출을 제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밤에 램탑이나 데스크톱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무료 소프트웨어 f.lux를 다운로드하여 추가하라.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 디스플레이의 색상을 하루 중 시간에 맞게 조정해서 밤에는 따뜻한 색깔로, 낮에는 햇빛과 같이 만든다.

더 나은 솔루션은 블루라이트 차단 보안경을 사용하는 것이다. 침대에 누워 TV를 보거나 아이패드나 책을 읽을 때마다 나는 Uvex S1933X Skyper Safety Eyewear을 착용한다. 저렴하고(아마존에서 \$8.52) 비교적 편안하다. 파란색을 모두 걸러내므로 TV를 시청할 때 화면 색상이 야에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찾은 최고의 수면 도구 중 하나이다.

(6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제2차 차세대목회자21인 초청 OC영적대각성새벽기도회
주제(대하 7:14) 부흥의 세대여 다시 일어나라!
3050 차세대 목회자 세미나
2023 사모블레스 나이트
공동주관: OC기독교교회협의회, OC목사회, OC여성목사회, OC장로협의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협찬: 미주복음방송, 크리스천헤럴드, CHTV, 세계어머니기도회, 기독교일보,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비전, [주간]사람과사회 협력교회: 은혜한인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씨드교회, 갈보리선교교회, 미라클포인트교회

절망의 시대를 이기는 기독교 변증

(1면에서 계속)

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도 인간은 얼마든지 연민과 인권 같은 객관적인 도덕성과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전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눈에 무신론은 일반적으로 도덕적이고 심리적 절망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었다.

예를 들어, 실존주의에 관한 유명한 에세이에서 장 폴 사르트르는 신과 별개로 객관적인 도덕성을 유지하려는 초기 프랑스 무신론자들의 노력을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다. "실존주의자는 ...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극도로 부끄럽게 생각했다. 지성이 작동하는 천국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그 순간 모두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카뮈에게 초월적 의미의 상실은 삶의 부조리를 수반했다. 카뮈는 인간의 존재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영원히 언덕 위로 돌을 굴리지만, 매번 다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운명에 처한 시지프스)에 비유했다. 무신론에 의해 도입된 혼돈과 분열의 감각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유명한 "미치광이" 우화에서 강력하게 전달된다. 이 인물(일반적으로 니체를 상징한다고 간주된다)은 시장으로 달려가 외친다. "신은 어디에 있는가?" ... "난 당신에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신을 죽였다. 당신과 내가 죽었다. 우리는 모두 신의 살인자이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어떻게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가? 저 지평선 전체를 쓸어버리는 스핀들을 누가 우리에게 주었는가? 태양으로부터 이 지구를 풀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지구는 지금 어디로 움직이는가? 우리는 어디로 이동하는가? 모든 태양에서 멀리? 우리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지 않은가? 뒤로, 앞으로, 앞으로, 모든 방향으로? 여전히 위 또는 아래가 있는가? 우리는 무한한 무를 통과해서 방향하지 않는가? 허공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가? 더 추워지지 않았나? 밤이 점점 더 다가오지 않는가?"

현대 절망의 아우라가 이러한 은유 속에 잘 포착되어 있다. 지평선을 없애고, 지구를 풀고, 허공으로 뛰어드는 등. 많은 현대인이 이유는 몰라도 니체가 그린 이런 식의 심상이 드러내는 감정에 공감한다. 실제로 21세기 세속적 사고가 19세기와 20

세기 실존주의적 사고에 반영된 기본적인 갈등을 능가하지 못했다고 믿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비록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절망이 여전히 현대 문화의 뿌리 깊은 요소임은 분명하다. 이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생각 실험을 살펴보자. 21세기 맨해튼 은행가가 타임머신을 타고 천 년 전 서유럽의 한 수도원으로 여행했고, 그 수도원의 수도사 중 한 명이 타임머신을 타고 21세기 맨해튼으로 여행했다고 상상해 보자. 한 계절 동안 두 사람이 서로 자리를 바꿨다. 누가 문화적 충격을 더 크게 받을까? 누가 혐오감과 불쾌감을 더 강하게 느낄까?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고 잘 지낼 가능성이 높은 쪽은 과연 누구일까?

의심할 여지 없이 시간여행은 두 사람 모두에게 든든한 경험이 될 것이다. 그리워할 게 많은 21세기 세계인답게 은행가는 새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게 많다. 나는 과거를 마냥 낭만적으로만 만들고 싶지 않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특히 인간의 마음에 관한 문제에서, 나는 수도승이 발견할 21세기 세상이 그가 살았던 세계보다 더 빈곤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더 연결되어 있지만 더 외롭다. 수명이 길어졌지만 그만큼 자살률도 높아졌다. 더 많은 기회가 있지만, 불안과 우울증도 급증한다. 우리의 세계는 분명히 더 화려하다. 그러나 수도사의 세계에는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도 모를 뿐더러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도조차도 모른다. 단지 "절망"이라는 단어로 현대인의 갈등을 표현하는 건 부족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외로움, 중독, 안전불감증, 우울증, 지나치게 바쁘고 산만한 삶의 이면에는 깊고 요동치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다. 마크처럼 우리도 "먼지와 부서진 병, 오래된 강퍽 더미와 건조하고 숨 막히는 곳"에서 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이 복음을 경험하고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무슨 의미를 갖는가? 절망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변증해야 할까?

러시아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1983년 템플턴상 수상 연설은 유명하다. 그는 먼저 20세기 폭력이 가져다준 끔찍한 공포를 이야기하고, 모든 공포의 원인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을 지적했다. "오늘 내가 우리 인민 육천만여 명을 삼켜버린 파멸의 혁명이 가능하게 만든 근본 원인을 가능한 한 간결하게 서술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다음 말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20세기의 폭력과 관련해서 솔제니친의 진단이 사실인 것처럼, 21세기의 절망도 마찬가지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절망을 다루는 데 교회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은 아니다. 반대로, 현대인에게 의미 있고 진정성 있게 복음을 전하려면 지혜와 더불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절망의 시대에 복음을 설득력 있게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복음의 충만함을 선포하라

바울의 말처럼, 복음 메시지의 핵심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전 15:3)이다. 그러나 바울 자신조차도 복음을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전달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그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는 핵심 전락은 다양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구약의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한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했다.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다. 이교도 환경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창조의 교리로 더 거슬러 올라갔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이교도들의 시인을 인용함으로써 그들의 세계와 연결할 다리를 놓을 창의적인 방법을 찾았다.

오늘날 우리는 점점 더 사도행전 17장의 문화 속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창조라는 더 큰 맥락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바울에게서 배워야 한다. 상대가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많은 현대인에게 이해하기 어렵거나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사도행전 17장의 맥락에서 사도행전 13장의 메시지를 설교하는 것과 같다. 존 스토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설

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복음이 거짓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복음이 사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경험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통합된 세계관을 찾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 없이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창조 없이는 십자가를 전할 수 없으며, 심판 없이는 구원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에게서 배운다.

환멸과 절망의 시대를 사는 변증가로서 우리는 복음이 함축하는 모든 의미가 현대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갈망 및 고민을 반영하도록 전달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현대의 절망에 대한 해답으로 인식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회에서 가르쳤듯이,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채우는 안식과 성취의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원천이다. 현대인의 절망에 있어서 하나님은 배고픈 자에게 주어지는 음식과 같다. 오직 그분과 연결될 때만 우리는 건조하고 숨 막히는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게 복음인 이유이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의 교제 안으로 인도한다. 그러나 사도행전 17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에서도 불신자가 이러한 다양한 포인트를 제대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절망의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인내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전도는 점점 더 깊고도 복잡한 과정이 될 것이다. C. S. 루이스의 마크를 다시 생각하자. 감옥에서 "정신"을 만난 후에야, 그는 그리스도께 응답할 수 있는 위치에 놓였다. 루이스의 회심도 비슷하다. 그는 유신론으로의 여정을 길고 느린 체스 시합에서 진 것에 비유했다. 1929년에 유신론자가 되고도 이 년이 더 지난 1931년에 가서야, 그는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1925년 또는 1927년 당시만 해도, 루이스 생각이 자신에게 그다지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었다. 우리가 친구, 직장 동료, 가족, 그리고 이웃과 함께 복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지점에서 그 메시지는 아직 시기상조일 수 있다.

시론

하나님의 선교, 그 아름다운 구속의 사랑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여름은 선교의 계절이라 불려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선교지를 찾아간다. 서구교회가 근세에 들어 신학의 한 분야로 발전시킨 '선교학(missiology)'에서는 '타대륙으로, 타인종에게로 찾아가는 선교'의 기원을 창조 시대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라는 정의를 통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속(redemption)하시기 위해 일하신다는 의미로 선교를 풀어내었다.

한국의 교회들이 그렇듯이, 미국의 한인교회들도 여름철에 단기간 선교지에 다녀오는 시간을 '단기선교'라고 부르고, 청년과 청소년을 비롯해 직장인들에게도 선교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Missio Dei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선교의 신학적 정의가 '하나님의 선교하심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사람들을 찾아가 섬기는 삶'이라면, '단기선교'라는 말은 선교를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하나님의 선교'라는 의미를 통해 볼 때, '단기선교'라는 이름으로 짧은 며칠, 또는 1-2주 정도 '선교지'에 가는 일은 '선교'라고 부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아, 순종으로 섬기는 시간이라고 설명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단기선교'라는 이름보다는 조금 길지만 '선교지에서의 단기봉사'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근본적인 성경적 선교 정신을 가르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교회로서는 많은 재정과, 헌신을 요구하는 '단기선교'이지만, 성도 개인이나 어느 교회의 한철 행사가 아니며, 매년 올해의 주제를 정한다 해도, 언제, 어디서, 누가 행하든지 선교의 주제는 아담 이후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확실한 선교의식과 선교적 소명을 지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것들이 바로 언약, 구속, 사랑, 희생, 섬김, 거룩과 같은 요소들이며 '영적전쟁'이라는 단어 또한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내용물인 것을 받아들일 때, 선교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 나아가 선교의 필요와 책임에 대해 기쁨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2주간 남미 파라과이에서 단기봉사를 준비해왔다. 정기적인 준비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사실의 확인이었다. 두 주간, 개인병원을 만들고, 한의원과 미용실을 만들고, 개인 휴가를 이 시간을 위해 드리는 결심들 속에 바로 '구속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참여하는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고전 9:22)' 바울 선교를 공부하면서, 시대와 민족과 환경을 초월해 오직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오신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을 배운 팀원들은 이미 각자 자신에게 복음의 선교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선교지에서의 단기봉사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두 주간 오직 그렇게 오신 '예수처럼' 살고 오는 일임을 기뻐하며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은 기상이변과 전쟁의 기운, 경제적 압박 등으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선교'가 필요한 시대이다. 우리 교회들이 가야 할 곳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거짓과 위선과 자만을 벗고, 구속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선교사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재다짐의 절기가 바로 '선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들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djee7777@gmail.com

(16면으로 계속)



2023 LA6기 전문강사스쿨

- 입학 자격: 구약/신약 성경방을 수료하신 모든 분
- 제출 서류: 입학원서, 성경방 수료증
- 스쿨 일정: 2023년 9월 - 2024년 3월 (약 6개월간 주 1회(월)수업)
- 강의 방법: Zoom
- 스쿨 Venmo: [LALifePlaceMinistry](#)
- 특전: 목회자분들에게 소정의 장학금 지급(목사, 선교사, 전도사, 사모, 신학생 등)
- 시차별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Two Track School Course**

LA6기 스쿨은 미주의 시차를 고려하여 **Two Track(PST&EST)**으로 동시에 진행하여

동부 시차에 계신 분들도 7pm(현지시간 기준)에!
서부 시차에 계신 분들도 7pm(현지시간 기준)에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김성아 전도사(ahajausaschool@gmail.com)

[생터사역원 LA지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하여 여러 정신건강 전문가와 기관들이 함께 준비한 한인 정신건강 워크샵

2차 세미나

일시: 7월7일부터 8월1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
장소: **American West University**
1818 S. Western Ave. #302 LA CA 90006

"여러분이 참여한 한인 정신건강 워크샵은 LA 카운티의 한인들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날짜	주제	강사
7/7(Fri)	자살 Suicide	수잔 정 박사 카이저 정신과 닥터
7/14(Fri)	정신 분열증 Schizophrenia	수잔 정 박사 카이저 정신과 닥터
7/21(Fri)	성격 장애 Personality Disorder	김경준 박사 월드미선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
7/28(Fri)	수면장애 Sleep Disorder	김경준 박사 월드미선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
8/4(Fri)	낙인 Stigma	양 에스더 박사 미주 장신 가정상담학 교수
8/11 (Fri)	섭식장애 Eating Disorder	김경준 박사 월드미선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

워크샵 참석 베네프

- 1) 한국어와 영어로 된 정신건강 정보 안내서 무료 증정
- 2) 세미나 후 10명의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한 정신건강 네비게이터들이 상담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기관에 영어로 서비스 신청 대신 해 줌.
- 3) 간단한 간식과 음료 제공

프로젝트제공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
hope. recovery. wellbeing.

ASK
Good Life Care Resource Center
3388 W. 8th St. #103 LA CA 90005

Korean Navigation Mental Health Project
컨설턴트 (Consultant) : 김효철 (Hyocheol Kim)
213.820.8855 | khckjo@gmail.com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림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콘스탄틴 대제

오늘날의 모든 기독교인은 콘스탄틴 대제에게 큰 빛을 지고 있다. 즉, 디오클라티아누스 황제의 엄청난 핍박으로 재산 몰수와 교회 파괴, 예배 금지에 대한 제재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허락받았다는 점이다. 즉 폰테빌비오 전투에서 기적적으로 막센티우스를 물리친 승리의 원인을 하나님의 도우심

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기에서 로마의 수도 밀라노에서 313년 칙령을 발표했다. 즉 신앙에 대한 자유와 전 황제가 몰수했던 모든 기독교도의 교회 재산을 돌려주도록 했다. 고로 이제까지 음습한 카타콤 베에서 햇볕을 그리워하며 고난을 받던 성도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에 못지않은 큰일을 도모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공의회 결정이었다. 그 결정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약 1700여 년 동안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문제는 3세기부터 썩듯게 되었고 4세기 아리우스로 인해 공의회에서 본격적인 쟁점이 벌어지게 되었다. 즉 육생활과 실천적인 설교로 존경받던 알렉산드리아의 바우칼리스 장로인 아리우스가 헬라철학의 영향을 받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 아니라고 하였고, 그에 반대하여 소수파인 알렉산더는 동일 본질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두 주장은 그것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으므로 황제가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콘

스탄틴 대제는 최초로 로마제국의 제 1차 공의회를 개최하였다. 통치자의 입장에서 국론 분열은 제국의 약화를 초래한다고 여겼기에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 황제는 개회 인사 후 공의회가 종료되는 며칠 동안 회의에 함께했다. 주요 쟁점은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 아니며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주장한 장로 아리우스에 대한 논쟁이었다. 초대교회 이후 변종 가들과 교부들의 관심사는 기독교에 관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면 창조주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인가? 등 그리스도의 양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 왔다. 그런 중에 아리우스가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고 일어났다. 당시 공의회에 참석한 318명의 참석자들은 칼타고와 디존, 밀란, 그리고 페르시아와

고을에서 온 다른 2명의 교부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헬라어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었다. 아타나시우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회의에 성령님의 역사가 개입하셨다. 놀랍게도 318명 중의 316명의 찬성으로 열세인 것처럼 보였던 아타나시우스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고 인간적으로 존경 받았고, 유능했던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결의되었다. 이런 일은 공의회에 개입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두 손을 놓으시는 것 같아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변곡점에 개입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된다. 가정해본다면, 만일 아리우스의 주장이 공의회에서 받아들여졌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결정적 역할에 쓰임 받았던 아타나시우스는 그 후 그 주장 때문에 미움을 받고 정치

적 부침에 따라 무려 다섯 번이나 유배형에 처해야 했다. 아무튼 이런 놀라운 결정을 도출한 콘스탄틴 대제로 인해 기독교의 몰락기는 빠르게 흘러가게 되었다. 그 후 뒤를 이은 아들 콘스탄틴 2세도 자신이 통치하던 동 로마지역을 아우르고 있던 아리우스 지지자들의 끊임없는 유혹과 간청이 있었지만, 선왕 때 결정된 공의회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도들은 콘스탄틴 대제에게 큰 빛을 지고 있다. 공의회를 통해 채택한 니케아 신조는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자를 믿는다. 또한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며, 아버지와 본질에서 동일하신 분임을 믿는다.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박신웅 목사
(폴립버스한들장로교회)



인생의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만남, 스승과 친구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그러나 당신이 꼭 만나야 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쁨은 좋은 교회 성도들과의 만남으로 배가 됩니다. 이렇게 인생의 방향을 끝내 주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 3:16-17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 16:16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행 16:31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는 자가 가정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값없이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 값없이 은혜로 얻는 것을 다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이 값없다 하니까 구원을 무가치하게 생각할 때도 작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도 작용하고 주님의 종들을 생각할 때 그대로 드러 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매우 결례가 될 생각

없는 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결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재력으로 해결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없는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무가치하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정말 소중한 생명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에 존귀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에 합당한 존귀한 삶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다 시간이 지나며 당연하게 생각하고 왜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시편 116:12-14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와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셨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하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자기도 죽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때 예수님은 내가 죽는다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자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 그 길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 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볼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결국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대개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을 믿는 것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함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덤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까지 미리 걱정하지 말고 매일 아침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 것을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우리가 그의 외아들 우리의 생명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조바심을 냅니다. 먼저 떡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챙겨 놓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이 땅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실히 살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먼저 할 일이 하나님 나라와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문제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의도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직도 세상 염려로 걱정하며 사십니까? 베드로 사도도 권면합니다. 벰전 5:7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직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 하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빌 4:6-7입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요한복음 14:6

과 행동들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구원이 값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무가치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편 49편 6-8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도록 하는 값은 너무 엄청나서 어떤 사람도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아무리 재물이 많은 자도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공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공짜가 되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구원받을 자격이

를 살아야 합니다. 엄청난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의 한 구역을 택해서 집집마다 매일 100달러씩 갖다 놓은 후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한 것입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의아해하면서도 슬그머니 돈을 집어 갔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100달러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둘째주쯤 되자 현관 앞에 나와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셋째주쯤 되자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해하지 않았고 넷째주가 되었을 때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 갔습니다. 실험 기간인 한달이 지나자 학자는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매우 불쾌해하며 "왜 오늘만 안 주고 가느냐"고 따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푼 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고 불쾌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이 이 땅의 복으로만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요한이 가이오장로에게 편지하는 것처럼 요삼 1:2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범사가 잘되기도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강건하기도 원하십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대개 영혼이 잘되는 것을 생략하고 범사만 잘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까 마 6:31-34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을 아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예수님 자신이 소개하신 예수님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 16:16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 16:16베드로의 고백 전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예수님이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를 알게 하신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하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결국의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교회를 탄생하게 합니다. 요 14:6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결론입니다. 첫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이 크기에 공짜입니다. 이런 크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둘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직도 세상 일에 매여 예수님을 이 땅의 복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psw0204@gmail.com

를 믿는 것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함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덤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까지 미리 걱정하지 말고 매일 아침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 것을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우리가 그의 외아들 우리의 생명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조바심을 냅니다. 먼저 떡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챙겨 놓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이 땅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실히 살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먼저 할 일이 하나님 나라와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문제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의도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직도 세상 염려로 걱정하며 사십니까? 베드로 사도도 권면합니다. 벰전 5:7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직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 하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빌 4:6-7입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기준과 기초

한국교회나 서구교회들이 오랜 신앙의 전통가운데, 결코 변질될 수 없는 신앙생활의 성경적 근거로 드는 것들이 있다. 기도와 말씀, 전도, 주일 성수와 십일조의 신앙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미 목회현장에서 복된 개혁 신학의 전통위에 맺은 귀한 열매라고 할 수 있다. 교회마다 수많은 성장 프로그램과 교육방법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참된 영적 회복의 현장들에는 앞서 언급한 기준들이 불변의 기초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다. 과연, 기도와 말씀에 열정 없는 교회, 전도에 아무런 사명감이 없는 교회, 주일성수를 해치거나 십일조 신앙관을 분명히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에게서 참된 성장과 성숙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

신앙생활의 은혜를 강조하지만, 정작 원하는 것은 은혜가 주는 평안이 아니라, 편리하고 편만한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 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된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필요하다. 온전한 화평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질서가 존재해야 한다. 질서는 기초와 뼈대의 구조가 잘 갖춰진 상태를 말한다. 기초가 부실해서 곧 무너져가는 건물 안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하모니의 사랑을 노래한다고 해도, 결코 행복을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장 은혜가 넘쳤던 신약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화평가운데 든든히 서 있다'(행 9:31)는 표현을 기억한다. 가와만사성(家和萬事成)이란 말처럼,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저들이 이루어 가는 공동체가 가장먼저 은혜받은 화평함이 가득했었다. 조금도 평화를 맛볼 수 없던 척박한 현실가운데서, 교회가 가지는 그 놀라운 평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며, 마땅히 그리스도께로 자라갈 양분을 얻는 것이라면, 힘써 결단해야 한다. 그런데 항상 편리와 편안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찾으며, 훈련의 뒷자리에만 머물게 될 때, 외려 스스로 은혜를 벗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의 어느 유명한 목회자가 언필칭 '우리가 인생의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고 나아가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함으로 모든 것에 승리가 주어진다.'는 말을 해서 많은 이들의 절대 공감을 얻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굉장히 오역할 수 있는 무책임한 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고백적 예정론과 같이 삶의 여정을 다 지나간 후에,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언설일 수는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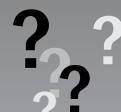
그러나 아직 살아보지도 않고, 살아갈 날들이 창창한 이들에게 너의 선택의 자유의지가 은혜와

은혜가 임하면 자연스레 알고 깨달을 날이 있겠지만, 그러한 과정도 실제로는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라고 할 수 있다. 무주공산(無主空山)에 홀로 독아청정한 사람이 절로 하나님을 알고 깨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체를 알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에 이룰 수가 있을까? 성경자체를 많이 읽고, 보고, 듣고, 순종의 몸부림을 치는 것이다.

성도들 중에 미국에 이민을 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에게 가르침을 통해 은혜를 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 원리는 단순하다. 쉽지 않지만, 딱딱해 보이는 성경자체를 가르치는 것이다. 가르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성경 본문을 본문으로 공부하며 변증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일이었다. 딱딱하지만 구체적으로 본문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자체를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그래함이 어떻게 믿게 되었으며 그의 유명한 설교와 인기에도 불구하고 스캔들이 한 번도 없이 평생 높은 도덕성과 순수함을 유지 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LA에서 이희은

빌리그래함을 위대하게 만든 것

A: 엘버트 맥네트는 크리스천 농부였는데 자기가 가진 큰 픽업 트럭에 사람들을 많이 태워가지고 전도 집회 같은데 많이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빌리그래함이란 얼굴이 잘생긴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 다. 그의 온통 관심은 이 소녀 저 소녀와 연애하는데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인근에 전도 집회가 열리게 되었을 때 그는 빌리그래함에게 트럭을 몰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며칠째 참석하면서 그는 결국 자기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렸습니다. 그 해가 1934년이었습니다. 이후 빌리그래함은 유명한 전도자가 되어 수 백만명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였고 20억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트루먼 대통령을 위시하여 12명의 미국대통령의 멘토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빌리그래함은 성경적인 설교로 유명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I think)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기를 (The Bible says)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빌리그래함을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했던 2가지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이 이해할 수 없고 모순처럼 보이는 곳도 많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으며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둘째, 내가 만일 하루라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을 망각한 채 강단에서는 경우가 있다던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령의 불의 도우심이 없는 설교를 해야 하는 일이 있게 된다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빌리그래함 전도팀은 1948년 캘리포니아 모데스토에서 탁월하게 쓰임 받던 전도자나 기독교 단체가 무너졌던 원인을 분석해 4가지 필수 사항을 선언문으로 발표하고 이것을 지침으로 최고의 도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데스토 선언문(Modesto Manifesto, 1948)입니다. 그 선언문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다른 단체나 단체의 지도자들을 비판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둘째, 주어진 재정을 책임있게 가장 높은 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완전히 공개한다. 셋째, 진실을 말하며 모든 통계(특히 집회 참석자 숫자)는 정직하게 발표한다. 넷째, 아내 외 다른 여자와 단둘만의 자리를 갖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성적 탈선의 가능성을 가져올 행동은 각별히 조심한다.

나 설교가 이렇게 진행될므로 건강하고 성숙해질 것이다. 말미암아 철저히 성경말씀중심, 이를 위해 하나님 자체를 배워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목회자 자신에게는 영권이, 이를 순종하며 따라오는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비로운 경외감이 생기더라는 것이다. 즉, 말씀의 권위에 대한 행복한 굴복이 상호간에 충만해 지더라는 것이다.

영권과 주를 경외함

오늘날 다시 기초와 기준을 세워야 한다. 새롭게 세움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옛날로 무조건 돌아가는 회귀(回歸)가 아니라, 회복(回復)을 필요로 한다. 기준을 말하는 것을 싫어한다.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약이 된다면 부담스러운 것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단단한 음식의 양약을 먹는 과정이된다.

davidnj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신앙의 기준, 가르침과 배움

-은혜, 본문, 영권, 경외함-

론, 이러한 신앙의 기본 전제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해석하는 이들도 많다. 저들의 주장 가운데 한 가지는 지나치게 율법주의처럼 강조한다는 것이다. 나름의 근거를 들어서 말하기도 한다. 참 좋은 신앙의 전통들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안에서 너무나 형식적인 모습으로 많이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자연스레 은혜받으면 될 일을, 굳이 강조하고 강조해서 형식화를 시키다보니, 외려 부작용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오늘날 이 다양성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주일성수나 십일조, 예배를 강조해서 과연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성장할 것인가? 답답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달콤 살콤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고, 그 감동이 은혜가 되어 교회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동의할 수 없다. '본질과 기본'의 문제는 열매의 문제, 사람의 문제, 세상돌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하는 데, 청하고자 하는 목회자가 새벽기도, 십일조, 주일성수 등을 너무 강조하기에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교회의 중직자들이 모범적으로 이를 실천하고 행하기에는 그만큼 형편들이 따라주지를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때 한분의 장로님이 선지자처럼 말씀하셨다고 한다. '적어도 목회자라면 그렇게 이야기 하고 강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형편을 따라 지키고 못지키는 우리 성도들의 결단의 묵이고, 목사님은 기준과 본질을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은가?' 정말 시대를 거슬러가는 선지자같은 말씀이 들렸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의 기준과 기초를 말하기에,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현실은 너무 성경에서부터 멀리 와 있음을 보게 된다.

은혜, 나태와 게으름

화를 보면서, 사람들은 곧 교회로 교회로 모여들었다는 것이다. 분쟁과 소란스러울 때, 이것이 좋아서 모여드는 경우는 없다. 모여도 얼마가지 않아 깨뜨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단이 원하는 분열의 모습을 저항하는 화평이 너무나 소중하다. 그러나 화평과 화목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마땅히 배우고 가르쳐야 될 신앙생활의 기준을 빠르게 세우지 못하면, 그 화평은 쉬 언젠가 허망하게 무너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은혜로운 공동체는, 모두가 '좋다 좋다, 은혜로 합시다.'라고 하는 분위기속에서도 한결같은 신앙의 분명한 가르침과 배움을 가져야 한다. 실제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 함께 모여 떡을 떼는 복된 모습과 더불어 항상 가르침과 배움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참된 은혜의 기초에는 온전한 배움과 가르침이 있음은 참 불편해 보이는 진실이지만, 믿음으로 듣는 이들에게는 축복이 될 것이다.

단단한 음식, 장성함

가르침과 배움은 교회를 세워가는 성숙한 신앙의 필수조건이다. 그런데 오늘날 가르침과 배움을 등한시하는 현상의 중심에는, 지나치게 감정에 호소하는, 일명 '은혜중심'의 달콤 살콤한 목회적 적용이 한 몫을 감당했다고 본다. 성도들로 하여금 뿌리 깊은 신앙과 삶의 축복을 간과하는 이유가 되었다. 과실수를 키우다 보면 깨닫는 진리가 있다. 여름가뭄에 너무 많은 물을 주지 말라는 원리이다. 늘 물이 좋으면 과실수가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무는 여름가뭄에 스스로 물을 찾아 땅속깊이 뿌리를 내리는 데, 그때가 매마를 때라는 것이다.

인생이 배움과 가르침이라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는 연습을 해야 한다. 단맛이 아닌 쓴맛이어서

결합할 때, 네 삶은 축복이 될 것이다. 얼마나 희망을 주는 말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 희망은 하나님 안에서 결단과 순종, 말씀에 대한 철저한 자기향복에 게으르게 만들 뿐 아니라, 인생의 죄악에 대한 간과를 가져와서 참되고 진실한 정금같은 신앙으로 성장과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잃게 될 또 다른 좋지 않은 기회를 주지는 않을까 염려가 된다.

배움과 가르침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정은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열매의 결실을 보지 못하는 잠시 잠깐의 감정적 터치에 불과하다면, 결국은 허망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신앙의 감정이 필요하지만 감성주의가 곧 영적인 것인 양 눈물을 흘리고 느끼며 감정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은혜를 받았다는 것으로 오해를 하여 말씀중심의 신앙생활보다는 감정과 감성 혹은 감각적인 신앙생활이 되어 버리면, 그 열매가 빈 껍질처럼 되고 말 것이다.

어찌 보면 Caring Pastoral 보다 더 못한 감정에 호소하는 연약한 믿음으로 흘러가 버린다. 따라서 신앙의 본질은 대단히 단단(hard)하고 고루한(boring)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fact)이며 진리(truth)이므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증거 하신다. 다양한 은혜의 프로그램의 개발이 교회성장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본질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한다.

본문중심의 성경에서 시작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나도 싫어하게 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자체에 대해 알아야 한다.

함께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큰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셨다. 교회마다 가르침과 배움을 말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응용하지만, 실제 은혜의 원역은 성경 그 자체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성경자체를 배우고 들음

말씀자체가 주는 힘은 실로 엄청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또한 양날을 가진 칼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그 칼로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하였으니 에스겔이 말한 대로 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예수님도 금식 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친히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시므로,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셨다.

아모서서에서 사람이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여 굶주리고 기갈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면 "성경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 되며"라는 것이다.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육신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 영혼 역시 죽은 것이므로 하나님께 산제물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예화적 설교보다는 본문 중심의 설교와 공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성경공부도 마찬가지로 본문 중심의 성경공부를 변증하며 정리한다면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어 목회적으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본문자체를 정리하는 성경공부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애독할 수 밖에 없고 성경애독과 더불어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찾는 과정을 지나게 된다. 그 결과 놀라운 것은, 성경공부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약속(約束)

숨을 쉬고 사는 수많은 동물 중에 오로지 인간만이 약속을 하고 산다. 사람 다음으로 높은 지능을 가졌다는 게나 원숭이도 미리 약속을 하고 짝을 만나러 가지는 않는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먹는 것과 믿는 것인데 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공자(孔子)는 믿는 것을 앞세웠다. 믿음이 깨지면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 애리수라는 가수(歌手)가 있었다. 1928년 단성사에서 ‘

황성옛터’를 처음 부른 뒤 여러 곡을 히트시키며 인기를 한 몸에 받던 미모의 가수였다.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녀는 갑자기 사라졌다. 세상에서는 많은 추측이 난무하며 사망설까지 돌았으나 그렇게 세월이 흐르며 그녀는 잊혀졌다. 많은 세월이 흐른 뒤 그녀의 사연이 공개되었다. 그 내막은 ‘약속’이었다. 그녀는 배00이라는 연세대학생과 사랑에 빠졌으나 결혼을 앞두고 만난 시택에서 그녀가 가수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한 것이다. 자살소동까지 벌였으나 시택의 완강함을 꺾지 못하고 결국 시

아버지와 의 굳은 약속을 하고 서야 결혼이 허락되었다. 가수라는 것을 숨기고 더는 가수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렇게 어렵사리 결혼한 2년 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남편마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가수활동을 해도 되지 않겠냐고 그녀에게 제안했으나 이 애리수는 남편의 제안을 거절했다. 비록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으나 약속은 약속이라며 평생을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98세가 되어서야 그녀의 사연이 알려졌고 그 이듬해인 99세에 타계하였다. 그녀의 자녀들조차도 어머니가 가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인간만이 약속을 하고 사는 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불신은 깊어지고 사회는 깊은 병에 걸린다. 한국 사람의 80%가 타인을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는 OECD 국가 중 단연 최고라고 한다. 높은 사람이 식언을 하면 모방하려는 심리 현상에 의해서 서민들도 따라서 거짓말을 하고 덩달아 죄

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중병에 걸릴 수 있다는 의미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으로 시작하여 약속으로 끝이 난다. 약속의 주체인 하나님은 단 한번도 식언치 않으셨다. 인간이 약속을 어기고 또 어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셨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는다.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는 기독교인들일 것이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어떤 것도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존재는 단연 기독교인들이기도 하다. 세상은 점점 더 불확실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많은 약속들이 헌신처럼 취급되어 간다. 심지어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보라며 비아냥을 받기도 한다. 가짜 뉴스에 내로남불에 아니면 그만이라는 말 등이 상식처럼 난무한다. 입술에는 꿀이 발라졌으나 그 속은 시꺼먼 시궁창이다.

전화벨이 시끄럽게 울려도 선듯 그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도처에 걸려든 이를 삼키려는 함정이 그물망처럼 도사리고 있다. 믿을 수 없는 세상이 이미 되어버렸다.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넌다는 말이 그저 교훈이었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쇠다리도 속속들이 살피며 건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문제는 이런 정도가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때이기에 우리 주님의 당부는 더 절실하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말씀이 없다. 썩어질 것이 없다면 방부제도 필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캄캄한 어둠이며 썩어질 것들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3-16)는 주님의 말씀이 지금 행해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살아 있는 믿음이 절대로 필요할 때인 것이다. 단 한 번도 식언치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먼 년을 하루 끼지 기다리신 주님이 진정 소금과 빛이 절대로 필요한 이 때를 위해 참으신 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약속의 한 쪽을 굳게 붙잡으신 채 인간이 그 남은 한쪽을 맞닿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시아버지와 약속한 것을 평생 바쳐 지켜온 가수 이 애리수의 그 약속을 모든 기독교인이 사명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원하심에 부응함이 지금 나부터 시작되기를 결단한다. 나는 바로 이런 때를 위해 예비된 소금이며 빛인 까닭이다.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하나님·천국 존재한다” 믿는 미 인구 ‘역대 최대’

세속화와 탈종교화 물결로 인해 신과 천국·지옥 등 영적 존재를 믿는 이들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업체인 갤럽이 지난 2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하나님 천국 지옥 등에 대한 미국인의 종교적 믿음이 역대 최저점을 갱신했다. 갤럽은 지난 5월 1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설문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오차범위는 ±4% 포인트다. 2001년 진행한 같은 조사에서는 미국 성인 10명 중 9명이 ‘신이 존재한다’(90%·중복응답)고 답변했다. ‘천국이 있다’와 ‘지옥이 있다’는 응답도 각각 83%, 71%였다. 그러나 올해는 신이 존재한다(74%·중복응답)고 답변한 이가 10명 중 7명으로 2001년보다 16% 포인트 줄었다. ‘천국이 있다’(67%) ‘지옥이 있다’(59%) 등 답변도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주목할 부분은 어릴수록 종교적 믿음이 약하다는 점이다. ‘신이 존재한다’고 답한 이는 55세 이상 그룹에서 10명 중 8명(83%)이었으나 35~54세 그룹은 73%, 18~34세 그룹은 59%만 긍정적으로 응답해 젊은 세대가 장년 세대보다 영적 존재를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환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주된 이유를 세속화와 탈종교화로 꼽으며 “종교를 대체할만한 취미와 시설 등이

늘어나며 탈기독교화되는 젊은 세대가 많다”고 분석했다. 안덕원 헛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 예배학 교수는 “이런 추세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교회와 환대 경쟁 배려 사랑 포용의 가치관을 갖고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러 “폭해 회를선 전부 군사선박 건조” 국제 곡물가 급등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흑해곡물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이어 이번엔 “흑해에서 우크라이나 항구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잠재적 군 수송선으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국제 곡물가가 9%까지 급등했고, 저소득 국가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19일 텔레그램을 통해 “모스크바 시작으로 7월 20일 0시를 기점으로 흑해 해역에서 우크라이나 항구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잠재적 군 수송선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박 국제국은 우크라이나 정권에 선 분절 당사국으로 간주된다”며 “흑해 국제수역의 남동부와 북서부는 당분간 항행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NYT는 “우크라이나가 협정 파기 이후에도 흑해 곡물 수출을 계속 시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러시아의 이번 발표로 쉽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집 게를라흐 A/C 트레이딩 사장은 “상

황이 다시 격해지고 있고, 유럽의 ‘빵 바구니’인 그곳(흑해)에서 화자들이 철수하는 중”이라고 BBC에 말했다. 러시아의 발표 직후 국제 곡물가는 급등했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 밀 선물 가격은 9%까지 올랐는데, 이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수치다. 유럽증권거래소 밀 가격도 전날보다 8.2% 올랐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수석경제학자 아리프 후세인은 “이미 수십개국의 인구 수백만명이 두 자릿수의 물가상승률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서 곡물협정 중단 시점은 잔인하다”고 비판했다.

상황을 설명했다. 투어 가이드들이 그를 뒤쫓았으나 잡지 못했고, 북한 병사들이 이 미군 병사를 구급했다. 김 이등병은 지난해 서울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 과정에서 “망할 한국인”이라고 소리지른 순찰차를 견어차는 등 피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못해 48일간 노역장에 유치됐다. 노역을 마친 김 이등병은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본국인 미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공항으로 이송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 이등병은 공항을 빠져 나와 공동경비구역 경향 프로그램 현장에 나타난 뒤 돌연 북한으로 넘어갔다. 김 이등병이 공항에서 판문점까지 오게 된 구체적인 과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김이 지난 17일 본국행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갔다가 공항에 있는 JSA 관광 광고를 보고 관광 대열에 합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군 병사 월북 직전 사진 공개 “SNS 올리는 줄”

지난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갑자기 북한으로 넘어간 미군 병사의 월북 직전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됐다. SBS가 공개한 사진은 보면 주한미군 소속 트레이스 킹(23) 이등병은 검은색 반팔 티셔츠에 검은색 모자를 쓴 채 관광객들 사이에 함께 서 있다. 그의 주변에는 외국이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이들도 많았다. 관광객들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등 평범한 모습이었다. 당시 현장 목격자 등에 따르면 김 이등병은 판문점의 한 건물을 견학하다가 갑자기 북쪽으로 뛰어갔다고 한다. 목격자는 “처음 든 생각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였다”며 “그가 친구와 틱톡 같은 SNS에 올릴 영상을 찍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같은 투어 그룹에 있던 또 다른 목격자는 “이 남성이 갑자기 크게 ‘하하하’ 웃더니 판문점 건물 사이로 뛰어갔다”고 당시



김 이등병의 가족들은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한편 미국 정부가 김 이등병의 안위 및 소재 파악을 위해 북한 측에 여러 채널로 접촉을 시도 중이지만 북한은 여전히 묵묵부답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김 이병이 살아 있는지는 질문에 ‘그것이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우리는 그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의 상태나 그가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 건강상태를 전혀 모른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으로부터 응답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유감스럽게도 아니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의사소통이나 서신도 들지 못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관여의 징후가 없다”고 밝혔다.

숙면하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2면에서 계속) (잠자리에서 보안경 끼고 있는 거 좀 웃기지 않나? 물론 그렇다. 하지만 나는 취침시간에 아이패드로 즐기는 독서를 그만 둘 생각이 없으니 사람들의 놀림 정도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다른 빛도 차단하라. 안타깝게도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빛이 아니다. 외부에서 침실로 들어오는 빛—가로등, 자동차 조명, 달빛—도 수면에 영향을 준다. 방을 최대한 어둡게 해야 하므로, 창문에 암막 커튼 추가를 권장한다. 암막 커튼은 어디에서나 쉽게 살 수 있다. 차단 효능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라. 빛은 99.9퍼센트 이상, 자외선은 100퍼센트 차단해야 한다. 암막 커튼이 아니라면 수면 마스크 착용을 고려해보라. 비행기에서 주는 것과 같이 저렴한 제품은 편안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다. 제대로 된 제품을 구입하라. 내가 찾은 최고의 제품은 Sleep Master Sleep Mask이다. 눈을

완전히 덮고 벨크로 스트랩으로 단단히 고정하기에 나처럼 머리 크기가 농구공 정도 되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된다. 25.90달러로 다소 비싸지만, 한번 사면 수십년 동안 쓸 수 있고, 한 달만 제대로 써도 본전을 뽑을 것이다. (한 가지 단점은 새틴 소재로 만들어서 통기성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머리가 평소보다 더 따뜻해질 수 있으므로 침실이 덥고 습할 때는 권장하지 않는다.) 시원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라. 수면에는 온도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머리는 시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베개의 시원한 쪽을 찾는다), 몸은 그보다 따뜻해야 한다. (뜨거운 머리로 고생하는 사람에게는 쿨링베개나 쿨링캡을 추천한다.) 보통 실내 온도를 65도로 설정하면 이 두 가지 상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 (나는 60도를 선호한다.) 너무 시원해서 편안하지 않다면 잠옷이나 시트, 이불을 덮어라. 방 온도는 65도에 불과해도 피부 온도는 90도 범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하라.

경제력이 허락하는 한 최고의 침구를 장만하라. 평균 수준의 자동차를 타고도 출퇴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좀 더 편하게 출퇴근하려고 수만 달러를 추가로 차에 지출하는 게 미국인이다(예: 더 고급스러운 좌석, 더 많은 헤드룸). 하지만 이런 사람도 있고 있는 게 있다. 자동차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무려 네 배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대에 투자하지 않는다. 고작 수백 달러를 쓰면서 많다고 투덜거린다.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이집트산 면을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더 비싸다고 해서 반드시 품질이 더 좋은 것도 아니다. (“몇 수”로 뽑았다는 소리에 솔깃하지 마라.) 그러나 생필품을 사고 여윌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침구류에 투자하라. 다른 건 몰라도 베개만큼은 최고의 제품을 사라. (나는 펀돈을 모아서 65달러를 주고 Palais Royale™ Pinnacle Goose Down Side Sleeper를 클리어런스에서 구입했다. 현명한 지출이었다.) 알코올과 카페인이 시간제한

을 두라. 알코올은 수면 패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늦은 시간에는 마시지 마라. 나는 술을 마시지는 않지만, 대신에 다이어트 콜라를 정말 많이 마신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다이어트 콜라를 마셨고, 자정에도 별 생각 없이 마시곤 했다. (그렇지만 새벽 2시 30분 이후에는 안 마시려고 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는 내가 섭취한 모든 카페인이 30분 이내에 “내 몸에서 빠져나갈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살았다.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다. 트레이스 킹 브래드베리의 설명이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6시간이며, 이는 체내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데 24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이다. 오전 8시에 커피 한 잔을 마신다면, 오후 8시에도 아침에 마신 그 커피의 카페인이 25퍼센트까 내 몸에 남아있다는 말이다. 정오 이후에 마시는 음료를 취침 시간에 50퍼센트 수준으로 도수가 유지된다. 당시의 혈류에 흐르는 카페인, 복용량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하는 모든 종류의 카페인은 숙면을 어렵게 만든다.

나는 낮잠 자기 전에도 또 밤에 자기 전에도 쉬지 않고 몸에 카페인을 들이부었다. 내가 잠을 자도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게 당연하다. 요즘은 오후 두세 시 이후로는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는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하나의 시작이다.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도록 계획하라. 내가 어른이 된 이후 내게 “취침 시간”은 대부분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시간을 의미했다. 하지만 기상 시간은 그나마 규칙적이었는데, 시간에 맞춰서 출근해야 했기 때문이다. 제멋대로의 취침과 그나마 규칙적인 기상 시간이라는 그 수학이 결코 몸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건 당신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토요일 늦잠으로 부족한 잠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우리의 생체 시계에는 따로 “주말”로 표시된 설정이 없기에 상황이 더 나빠져 갔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 수면 패턴을 더 엉망으로 만들었고, 내 몸은 마치 시차 때문에 생

기는 피로 비슷한 고통을 견뎌야만 했다. 요즘 들어서 나는 취침과 기상 시간을 일주일 내내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쉽지는 않았지만, 규칙을 정했고, 페이스북을 확인하거나 넷플릭스 몰아보기를 하는 걸로 새벽 4시까지 깨어있는 않는다. 그래서 내 시간에서 우선순위를 더 잘 조정하게 되었다. 이걸 다 아는 이야기이다: 문제는 실행 여부이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전혀 새롭지 않을 것이다. 나도 다 해봤어. 그렇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새뮤얼 존슨이 말했다. “사람들에게는 지시보다는 자주 상기시켜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취침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 내가 소개한 방법을 시도해보라. 되도록 다 활용해보라. 숙면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함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라. by Joe Carter TGC

X. 종말론 (2)

A. 구약의 종말론

구약의 종말론은 주로 구약의 대망, 하나님의 나라, 새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개념들을 통해 설명되어진다. 이와 더불어 구약의 종말론의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는 “주의 날”이다. (요엘 1:28-29),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요엘서에서 예언한 “주의날”의 특징은 “어느 민족 출신이든, 왕족이든, 귀족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은 구약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후 성령의 강림을 말한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는 구약에서 바라본 종말 사건의 성취이며, 신약의 시작임을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타난다.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다. 신약의 선교 및 전도는 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이다.

B. 신약의 종말론

신약의 종말론의 특징은 구약의 저자들이 예언했던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음이다 (already).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구약성경에 말하는 가장 중요한 종말론적 예언의 성취였다. 이와 동시에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했던 많은 예언들이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not yet). 그러므로 신약의 종말론의 특징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긴장 관계라고 할 수 있다 (tension between already and not yet). “이미”란 신약의 성도들이 이미 향유하고 있는 것이며, “아직”은 성도들이 아직 소유하지 못한 미래적인 것이다. 신약의 종말론적인 본질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오스카 쿨만 (Oscar Cullmann)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D-day 와 V-day 사이에 살고 있다. D-day는 그리스도의 초림이었고, 그 때에 원수들이 결정적인 패배를 맞보았다. 그리고 V-day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며, 원수들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항복하게 될 시간이다.”

안토니 웨케마(Anthony A. Hoekema)는 우리의 역사적인 궁극적인 판단은 유보적이라면, 그의 책에서 (개혁주의 종말론)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을 인용한다. “세상은 종종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좋은 경우가

사를 주관하신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역사에서 악한 일, 선한일이 섞여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3)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4) 새로운 세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다. 5) 역사의 모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신약 시대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성도의 부활, 최후의 심판의 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사건들을 바라보고 나아간다.

그리고 현대의 특징적인 활동은 선교사역들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지상명령을 주셨기 때문

있고, 반면에 교회도 우리가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더 악한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역사적 사건들은 단순히 흑백논리로 설명되어서는 안 된다.” 안토니 웨케마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역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이해는 근본적으로 낙관적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을 이미 이기셨다고 믿는다. 비록 악이 종종 강해 보이거나 하나님이 이미 만물의 지배자 이시다.”

C. 그리스도의 재림

1. 그리스도의 재림은 갑자기(sudden), 가시적(visible)으로, 그리고 육체적(bodily)으로 다시 오신다. (마 24:44; 행 1:11; 벴후 3:10; 계 1:7).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였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5) 불법의 사람의 출현 (살후 2:1-10): 역사상 불법의 사람을 어떤 특정한 인물과 동일시 시킨 경우가 많다 (예를들면 로마 황제 네로, 도미티안, 히틀러, 스탈린, 교황, 등). 그러나 모두 틀렸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적인 불법의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 불법의 사람은 주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것이다. (살후 2:3)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살후 2:8) “그 때에 불법한 자

B) 세대주의 자들은 롬 11장의 “은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민족적인 유대인으로 이해한다. 이들은 유대인과 신약 교회는 전혀 다른 두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두 개의 다른 방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롬 11장의 “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민족적 유대인 전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세대주의 자들은 주님의 지상 재림 후에 있게 될 지상의 천년왕국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많은 특권과 영광을 누리다고 주장한다. 민족적 유대인과 일반적인 성도들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C) 개혁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칼빈의 이해와는 다르게 롬 11:25-26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현상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현상으로 본다. 그러나 이들은 세대주의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이며, 민족적인 구분이 없이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교회의 일원이 되어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개혁주의 신학자 가운데 종말에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할 것으로 주장하는 자들은 게할더스 보스, 존 머리, 코르넬리우스 비네마 (Cornelius P. Venema), 김 리델버거 (Kim Riddlebarger), 마이클 호튼 (Michael Horton) 등이다.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는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전반에 걸쳐서 유대인 중 택한 백성을 얼마씩 구원해낸 결과로서, 택한 유대인들은 모두 구원받게 된다고 한다 (윌리엄 헨드릭슨이나 바빙크도 비슷한 견해이다).

존 머리(John Murray) 교수는 이 구절을 (롬 11:25-26) 해석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였던 유대인들 중에 택한 받은 유대인이 신약시대 전반에 걸쳐서 회개하지만, 그러나 분문의 개념은 “집단지”로 많은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개하는 사건이 있음이 롬 11장 전체의 메시지에 조화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박윤선 박사는 개혁주의교리학에서 주님 재림 직전에 유대인들의 대거 회개할 시기가 한 번 있다고 주장한다. 마틴 로이드 존스(D. Martyn Lloyd-Jones)도 종말에 유대인들의 다수가 주님께로 돌아올 것으로 보았다.

롬 11장은 말세에 많은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사건이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

KHL0206@gmail.com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26)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에 (마 28:19-20), 교회가 해야 할 일 대한 사역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일이다.

신약 시대의 특징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발전과 동시에 사탄의 왕국의 성장과 발전을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마 13:24-30, 36:43)를 통해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계속 “알곡”과 함께 자라다가, 결국 추수 때에 마침내 가라지가 알곡으로부터 분리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다. 최후심판의 날까지 사탄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공존하며, 자라날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가라지가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

안토니 웨케마 (Anthony A. Hoekema)는 우리의 역사적인 궁극적인 판단은 유보적이라면, 그의 책에서 (개혁주의 종말론)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을 인용한다. “세상은 종종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좋은 경우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적으로 혹은 비가시적으로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2.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나타나는 표적들:

- 1)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됨 (마 24:14): 이것은 복음이 세상에 있는 각 개인 모두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다는 의미이다. 어느 민족의 몇 사람이 복음을 접해도, 그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이다.
- 2) 대환란 (마 24:15-22):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매우 큰 환란을 말한다.
- 3) 거짓 선지자들 (마 24:23-24): 사실 거짓 선지자들은 역사상 항상 존재해 왔다. 주님의 재림 전에도 동일한 현상이 있다.
- 4) 하늘의 권능의 표적들 (마 24:29-30):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은 분명히 우주적인 사건이다. 어느 부분적인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아마 주님의 재림 직전에 생기는 사건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있을 후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다. (마 24:30) “

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임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6) 온 이스라엘의 구원 (롬 11:25-26):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총명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아람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의미는 무엇인가?

A) 이방인, 유대인이라는 민족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전부를 가리킨다 (여거스틴, 칼빈). 이들은 “이스라엘” 말을 영적으로 이해하여,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로마서 9-11장 사이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11회 사용했는데, 한번도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이 부분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해한다면, 롬 9-11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무리가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현대대학생예배: 오후 2:00 청소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9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949) 481-4499, www.lsgc.com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7</p>	<p>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Tel: (213) 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후 1:20 영어권 (장사/KDC, 킹덤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 719-2244, www.dk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 559-7728 (전화 팩스 전용), Tel: (213) 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Tel: (323) 381-2202, www.mpcsl.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p>	<p>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 8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주일학교: 오전 1:30(주일-금),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 854-4010 / bible@bdc.org / www.bd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세계사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 225-7691 824 W. Valencia Blvd., L.A., CA 90015</p>	<p>세계선교회 담임목사: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 388-1827 / www.wmcc.org / worldmissionchurch3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p>
<p>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e-Fang Church)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모임예배: 오후 6:30 Tel: (310) 749-4756 실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실비치 Clubhouse 3 room 1(1F)</p>	<p>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윤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공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 오후 4:30 사역: 1. 여성사역 2. 교회 필리핀도 여성사역 3. 사: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 3. 알콜사역 4. 네트워킹사역 www.elphisteam.org / Tel: (562) 894-6214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2:00 금요성경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사랑교회 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Tel: (714) 446-6202, www.graecm.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경대방: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 749-4500, www.gccj.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종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 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p>	<p>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분당) E.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 Tel: 310-370-5500, www.torancejc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하늘사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모임: “어성경이 읽어지네”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 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회심, A Call to the Unconverted]

리처드 백스터의 다섯 편의 기도문 부록 중에서 [회개하였지만 다시 죄지는 자가 드리는 기도]의 몇 부분을 그대로 발췌하여 적는다:

“..... 저는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를 구속해 주신 구세주, 그리고 제 앞에 두셨던 끝없는 영광을 고의로 무시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 제게 주신 사명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런 목적도 없이 만들어진 것처럼 행동했으며,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며칠씩 낭비하기도 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고의적으로 자기 육신을 다스리며, 자신의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죽음과 불멸의 상태를 알도록 이성을 부여받은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이성을 감각의 노예로 만들어 너무나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오, 귀중한 시간을 저는 잃어버렸고, 지금은 그 시간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오, 그 은혜의 부름을 저는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그 많은 자비들을 낭비했고 죄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범한 죄의 깊이는 얼마나 깊은지요. 제가 잃어버린 위로는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요!

만일 제가 하나님의 의로운 법의 지배를 받았더라면 이 모든 기간 동안 저는 저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도 있었습니 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법칙 안에서 천국을 달콤하게 맛보면서, 성령의 기쁨 안에서 살 수도 있었습니 다. 그러나 저는 육신과 이 악하고 거짓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사랑과 끝없는 영광보다 이 짧은 죄악된 삶을 더 좋아했습니다.

아, 비참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음과 죄를 지은 것 밖에 없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넘어갔던 유혹들을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아, 비참합니다. 얼마나 사소한 것들이 저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는지요!..... 저는 구세주의 사랑과 은혜를 가볍게 여겼습니 다. 성령을 거슬렀고 양심을 침묵시켰으며, 목회자들과 저의 신실한 친구들을 슬프게 했고, 자신을 불행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이제 부끄럽고 저 자신에게도 짐이 되며, 저의 유일한 소망이며 기쁨이 되셔야 할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여겨지게 되는 불행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저의 은밀한 죄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

나님은 그 모든 죄들의 악함을 아십니다. 오, 하나님 저의 죄악들이 정체를 드러냈 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이 저를 뒤덮고 있습니다. 제 뒤를 돌아보면 저의 악함이 저를 쫓아와서 군대처럼 저를 공격해서 삼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앞을 바라보면 공의롭고 두려운 심판이 보입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께서 그 죄책을 면해 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속을 들여다보면 검고, 더러운 마음이 보입니다. 제 밖을 내다보면 세상이 여전히 저를 속이기 위해 새로운 유혹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 위를 바라 보면 하나님의 성난 두려운 위엄이 보이고, 제 밑을 바라보면 끝없는 고통의 지옥과 저와 더불어 마땅히 고통을 겪어야 할 친구들이 보입니다. 저는 사는 것이 두렵 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더욱 두렵 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 저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항상 동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 자재이시며,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사역 위에 넘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겸손하게 죄인처럼 되셨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행하시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제가 용서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의심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함으로써 제 모든 죄에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더욱이 저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언약을 세우셨으며, 이미 조건적으로 그러나 값없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신 대사면령을 내리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없는 믿음과 회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자에게는 예외 없이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기 가슴을 치며 부끄러워 하느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서 ‘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했던 세리처럼, 앞드려 회개하고 있는 이 죄인을 불쌍히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과 공로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하신 용서의 약속을 위해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이것만이 제가 믿는 전부입니다.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저를 정죄하지 말아 주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소서! 죄와 더러운 것들을 씻을 수 있는 이렇게 귀중한 샘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저의 악함으로부터 철저히 저를 씻어 주시고, 저의 죄로부터 저를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비록 하나님의 공의는 당장이라도 저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 저의 회개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정도가 되지 못한다면, 이 단단하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제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해 주옵소서!

오, 저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빛을 제게 비추어 주옵소서. ‘제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불쌍한 탕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맞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로 안아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도 인내로 저를 기다려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으며, 여기 진흙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저를 거절하지 말아 주옵소서!

.....저는 다시금 죄에서 자유롭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죄짓게 하는 본성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구합니다. 제 영혼의 모든 기능들을 거룩하고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주옵소서! 제게 천국에 속한 새로운 출생과 본성을 주시며,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저도 거룩하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오,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사, 제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저의 가장 기쁘고 달콤한 생각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길에 대한 대화가 저의 가장 기쁘고 달콤한 대화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미 이 세상이 제 마음 속에 너무나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제게 대해 못 박히고, 제가 세상에 대해 못 박히게 해 주옵소서. 저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게 해 주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수록 만족하게 하옵소서!

(9면으로 계속)

한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19)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

여름이면 캠핑하러 가는 것이 일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거의 매해, 같은 장소로 갔던 만큼 손바닥 보듯이 알기에 별 부담없이 말씀준비와 음식준비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란이 일어났던지, 한 분이 대표로서 여론을 반영한다고 하면서 다른 장소로 가자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일을 분담해서 하는 지혜로운 리더쉽을 가졌다고 보기는 혼자서 해치우려는 고달픈 리더쉽을 가진터라 새로운 장소에서의 야영은 생각만으로도 엄청난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늘 가던 곳에서는, 이른 저녁후 반 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폭포로의 하이킹, 돌아와서 예배후 모닥불 등 눈에 익고 손에 익은 스케줄이지만 새 장소에서는 뭐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를 뿐더러 우리 모임의 야영 취지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자연 속에서 치유로 한말 다가서고자 하는 것이지 새로운 곳을 찾다니는 여행클럽이 아니라’고 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님의 간섭하심이었는데 ‘한번 사전 답사를 해보면 될 터인데...’ 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 서너분과 함께 가 보았습니다. 훨씬 넓은 만큼 자연의 느낌이 물씬 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이 깊은 만큼 서로의 전화 연락이 가능치 않은 장소이고 다들 초행이기 때문에 잘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당일이 되어 많은 고생을 하고 찾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반가운 만남을 가질 수 있었고, 특별히 15분정도 거리의 호수는 지난 겨울 비가 많았던 만큼 주위의 푸른 나무들과 어울려, 어떤 영화의 한 장면보다 더한 아름다움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수그러들자, 교회 직분 혹은 본교회서 예배보기 위해 내려가신 분이야 할 수 없지만 ‘준비 없이 와서 내려가겠다’고들 하며 거의 반수가 산을 내려갔습니다. 많이 서운했지만, 남은 분들은 주위에 널려있는 통나무로 원없이 불을 지펴 고구마, 옥수수를 구워가며, 별과 달의 조영 아래 한 많은 싱글들의 이야기 잔치를 성대히 치를 수 있었으니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정해진 텐트로 들어갔는데... 아, 잔인하도록 추운 초여름의 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행 장소로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었는지 개인 침구를 충분히 챙길 여유가 없었던 건데 결국은 뒤척이다가 해가 뜰 즈음에 몸을 일으켜 모닥불을 지켰습니다.

믹스 커피를 들고 ‘불명’하면서, ‘같은 장소가 지루하다며 목소리 높은 분들 덕에 자연의 멋을 볼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우연인지 바로 그분들이 밤이 깊을기 전에 내려가 버린 것에 대한 섭섭함이 커피향보다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아침의 따사로운 햇빛 속에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임원들과 상의했습니다. “이제 일 년 계획에서 캠핑순서를 없이할까 아니면 산에 올라 캠핑이었던 하고 다같이 내려갈까...” 여러 의견이 오가던 중, 산공기를 들이키며 감격해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자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하던 대로 지속할 것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90절을 보면,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동일하시며 신실하시다’는 뜻이지요. 한부모 사역자 여러분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로 한 만큼 그분의 성품 중의 하나인 성실하심을 따라 변함없이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 믿어집니다.

hyojungyoo2@yahoo.com

단체티 제작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 Step 1: 디자인/견적문의
Step 2: 주문하기
Step 3: 시안확인/수정
Step 4: 상품수령

어린이 단체티 부터 청장년 단체티까지 전 연령 단체티를 모두 한곳에서 주문 가능

‘히즈핑거물에서 쉽고빠르게 제작!’



문의 환영! 문의: 718-886-4400 / info@chpress.net

Hisfinger / Psalm8:3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료보험이나 신분증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내게 있는 작은 것의 소중함

미국의 중소도시에는 미국 신학교를 다니며 섬겼던 이 민교회의 장로님께서 은퇴하

신 후 저를 찾아오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내외분께서 한 달여 동안

머무시면서 저녁이 되면 같이 동네 한 바퀴를 걸었습니다. 해가 지기 30분 전부터 한 시간 정도 걸으면서 장로님은 지난 38년 동안 살아오신 이민 생활과 교회 생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같은 동네에 사는 교회 식구도 동참하여 걷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걸으면서 간증 아닌 간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 역시 이민 생활에 성공하신 분이십니다. 두 분의 장로님께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방문하고 계신 장로님은 두 딸을 약사와 변호사로 키우셨는데, 아직 딸들이 결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다른 장로님께 "장로님은 자녀들을 다 결혼시키셔서 얼마나 좋으세요?"라고 부러워하며 말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장로님은 교회에서 장로 투표 받으실 때 한 번에 되셨잖아요?" 이 장로님은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에 장로 투표를 받아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한 장로님은 다른 장로님의 자녀들이 때때 따라다니다 결혼한 것에 대해서, 다른 장로님은 동료 장로님이 어려움 없이 장로로 선출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장로님은 우리는 내게 있는 작은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때가 있는데, 누군가는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부러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청년부 시절에 있던 한 자

매가 떠올랐습니다. 이 자매는 남성스럽게 행동하였고 얼굴도 여성미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름만 되면 행복한 얼굴로 교회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의 발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 발로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누군가에게는 없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먹어도 잘 소화시키는 소화력을 주십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을 주십니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모든 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스스로없이 다가가는 친화력을 주십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상상력을 주십니다. 상황과 분위기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

는 판단력을 주십니다. 촉감을 주십니다. 친화력을 주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영성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볼 때 내게 있는 것이 작은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누군가가 볼 때는 자신에게는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작은 것, 나는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부러워하는 것이라서 그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는 작은 것의 소중함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후 6:10) yosupbois@gmail.com

교회는 AI를 내칠 것인가...

(1면에서 계속)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받을 헛디딘다"(잠 19:2). 오로지 비판만 하는 것도, 오로지 실용주의 입장으로만 보는 것도 다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입장 다 비윤리적인 AI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를 훨씬 더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AI 비판의 위험

두려운 것부터 시작하자. 생성 AI (말하자면, 텍스트, 이미지, 코드, 비디오 등을 생성할 수 있는 알고리즘)는 설교 연구, 설교 그래픽 생성, 소그룹 질문 생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서 설교, 블로그 및 팟캐스트 스크립트 작성도 수행할 수 있다. 영적 질문이 있는 평신도가 목사나 멘토를 찾는 대신에 얼마든지 AI에 의존할 수도 있다. AI가 가까이 그들에게 "지혜"를 제공할 것이다. 모르는 게 없는 이 컴퓨터는 도대체 어디에서 정보를 얻고 지식을 만들어내는가? 모든 대규모 언어 모델(LLM)은 특정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학습한다. 예를 들어 ChatGPT는 2021년 이전 버전의 인터넷에서 교육을 받았다. 질문마다 질문의 매개 변수와 만족스러운 답으로 간주되는 자체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의 만족스러운 답변을 예측한다. LLM은 크라우드 소싱된 답변을 제공하며 모두를 만족시키는 답을 제공하도록 조급식 수정된다.

ChatGPT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조언을 요청하면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표현적이며 뻔한 답을 제공한다. 그러나 ChatGPT의 답이 뻔하다는 게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

무한해 보이는 정보에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제자도를 얼마든지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봇(bot)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배우고 또

열심히 지혜를 키우려고 노력하겠는가? ChatGPT 같은 LLM이 주는 약속이 무엇인가? 노력 없이도 얼마든지 숙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틀린 건 아니다. 광범위한 인터넷 세계마저도 장난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로 AI는 엄청난 기술 변화이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인정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하늘이 무너지는 건 이미 한참 전이다. 우리는 이미 안개 속에서 살고 있다. ChatGPT가 AI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일깨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AI를 일상생활로 도입한 게 ChatGPT는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맞춤형 검사, Google 검색, 내비게이션 앱, 차량 공유 앱, Siri, Alexa, 음성 텍스트 변환, 소셜 미디어 피드, 비디오 게임, 얼굴 인식, 스팸 필터, AI 코딩 앱, AI 자동화 배송 및 물류, AI 지원 의료 스캔, 나아가서 AI 전쟁에 이르기까지, AI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존재했다. 온라인에서 지금 당신이 보는 내용 대부분은 AI가 당신의 취향을 분석해서 내어놓은 내용이다. AI가 위협하다며 당신이 온라인에 분노를 표출할 때 정작 그 분노를 중재하는 것도 다 AI이다. 누가 무엇을 보는지 결정하는 것도, 어디에 참여하고 또 어떤 식으로 현실을 보도록 할지를 조종하는 것도 이미 AI이다.

더욱이 이러한 게 가운데 어느 것도 기술 자체를 다루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우리가 기계 학습, 신경망 또는 알고리즘 계산에 분노할 수 있는가?

AI에 대한 신학적 논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기술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춰야 한다. 고맙게도 목회자, 신학자, 윤리학자에게 다양한 분야에 걸친 AI 적용을 소개할 수 있는 쉬운 글과 팟캐스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함에도 이 정도의 학습으로는 보다 세분화된 수준에서 AI를 이해할 수 있는 실무자(AI 엔지니어, 개발자 및 연구원)와의

된 욕구와 생각을 미워하게 하소서. 또한 성령께서 제게 힘을 주사 모든 유혹을 물리치게 하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승리하며, 인내하게 하소서!

.....오, 일꾼들을 보내어 추수를 하게 하시며,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번성하여, 죄인들이 더욱 많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 땅이 천국처럼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함께 모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으므로, 저희는 모두 완전한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리겠습니다. 아멘!

younsuklee@hotmail.com



대화를 대체할 수는 없다. AI에 대한 신학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AI가 미칠지도 모르는 기형적 영향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싶다면 새로운 변종 기술이 나타날 때마다 두터지 잡기 계임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AI라는 기술 상자를 열고 내부를 살펴보고 모든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사용 사례를 숙지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윤리적으로 대응할 제자를 준비시켜야 한다.

AI 실용주의의 위험

모두가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외치는 건 아니다. 주변의 구름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다. AI가 몰고 오는 안개에 대해서는 알지만, 심각한 윤리적 질문 없이 무작정 AI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도 있다. 유용성이 사용을 정당화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실용주의자이다. 그들은 단지 관리적인 질문만 던진다. 시간 절약이 가능할까? 돈을 아낄 수 있을까?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될까? 교회와 같은 기관을 이끄는 누구에게나 실용적인 질문은 중요하기에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그런 질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행동은 효율성의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생성 AI는 얼마든지 (단조롭고 관습적인) 설교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설교는 목회자의 성경적 의무이다. 이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현명하지 않다. 아무리 발전된 기계라도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의 마음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들은 결코 살아 움직이는 진리로 교인들을 인도하기 위해 그때그때 설교를 조율할 수 없다. AI는 결코 설교 내내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님에게 맞춰질 수 없다는 것이다.

윤리적 신념 없이 AI를 받아들이면, 윤리적 실적을 범하게 될 것이다. 왜? 윤리적 원칙이 y라는 목표 달성 x의 수행이 가장 효율적이려면 x를 수행하는 것이 옳다는 식의 공리주의로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은 길

사도행전 17:26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국가 질서를 주관적으로 정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초기 AI 시대에 사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믿어야 한다.

다만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선택"(행 13:36) 것처럼 우리도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지금 우리가 AI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관한 내용은 우리 자녀들이 물려받은 윤리적 규범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대를 초월하여 AI를 깊이 숙고해야 한다. 실용주의자들은 미래의 결과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만 집중하기에 멀리 바라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두려워하는 사람도 현재에 갇혀있는 점에서는 똑같다.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AI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이지 않게 통합하고 있는지 더 깊이 알고 싶고 하지 않기에, AI에 관한 속보에 단지 반사적으로 반응할 뿐이다. 진짜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해야 할,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악한 AI의 운영 방식에는 둔감하면서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역량(신학, 윤리 및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일상생활에 미치는 AI의 윤리적 파급 효과를 탐구해야 한다.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용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평신도가 자신의 AI 사용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간단한 규범을 만들 필요가 있다. 두려움에 빠진 비판주의자와 실용주의자 사이의 논쟁에 에너지를 계속 낭비한다면 우리는 AI의 발전 단계에서 어쩌면 중간 단계에 살고 있는 독특한 우리 세대의 책임을 간과할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연 대화이다. 다양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교육함으로써 우리가 위해서 시작하지 않은 이 새로운 세상에 필요한 윤리적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 꼭 필요해서 AI 세상 속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by Patrick Miller



2022년 12월에 열린 ATS 한인동문회 모임

전 나약칼리지와 ATS, 8월 말로 운영 중단

재정적 문제로 인해 운영 중단 결정, 재학생은 편입 가능

뉴욕에 위치한 얼라이언스 대학교(Alliance University) 이사회는 7월 7일에 대학운업을 중단한다고 결정했다. 8월 31일부로 캠퍼스 및 온라인 교육 제공을 중단하고, 6백여 명의 신입생을 이미 선출했지만 가용학기 과정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재정적 인 문제로 MSCHE(Middle States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로부터 올해 말로 학교 인증을 잃는다는 통지를 받은 후에 이뤄졌다.

얼라이언스 대학교(Alliance University는 C&MA 교단 학교로, 학교이름을 바꾸기 전 나약칼

리지와 함께 목회학석사(M.Div.) 과정을 제공하는 ATS(Alliance Theological Seminary)라는 학교 이름으로 많은 한인 졸업생들을 배출해 왔다. C&MA 교단은 최근 몇 년 동안 학교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상당한 재정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의 도움으로 Alliance Theological Seminary의 프로그램은 계속할 수도 있을 예정이다.

재학생은 C&MA 교단의 다른 신학교나, 골든콘월신학교 등 협약을 맺은 학교에 학점을 가지고 편입할 수 있다.

(정리: 김재상 기자)



새로운 베다니교회 로고

베다니교회, UMC 탈퇴, GMC 가입 공식 발표

열심, 시간, 노력, 에너지... 앞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베다니교회(담임 백승린 목사)는 지난 9일 연합감리교단(UMC) 탈퇴, 16일에는 글로벌 감리교회(GMC)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

본 교회는 지난 5월 뉴저지 감리교단 내에서 실시한 정기 연회에서 탈퇴 금액 정산이 완

납되면 교회 재산을 소유하고 교단탈퇴를 승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백승린 목사는 "교회 안팎에서 어수선했던 이슈가 해결되어 감사하다"고 전하며 "아직까지 탈퇴 의사가 있으나 탈퇴하지 못한 교회를 위해 또한 연합감리교회가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존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부탁했다.

또한 백목사는 지난 2년 동안 돌아보며 "그 열심과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에너지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쓰지 않고 선교적인 일을 위해 사용했다면 아마 더 큰 변화를

경험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하는 교회로 더욱 풍성히 세워져 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백목사는 그의 칼럼을 통해 "글로벌감리교회(GMC)는 동성애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영적 운동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신은 감리교에 근거한다. 글로벌감리교회의 연회 구성은 지역에 제한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지역 중심으로 연회를 구성하지만 개체 교회의 선택을 존중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글로벌감리교회에 가입한 한인교회들이 독립적인 한미연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다니교회는 주자장에서 바라보는 교회 건물 형태를 기본으로 만든 새로운 교회 로고도 선보였다.

(정리: 홍현숙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2023 뉴욕선교대회 성료 “다시 한번 위기를 뚫고 복음으로 비상하라”

뉴욕교협(회장 이준성 목사)은 7월20일(목)-22일(토) 하크네시아 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복음으로 비상하라”는 주제로 2023 뉴욕선교대회를 개최했다.

20일(목) 오후 7시30분 준비위원장 김경열 목사 인도로 시작된 선교대회는 아도나이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 및 합심기도 후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의 북소리와 함께 선교사와 임원들이 입장 했다. 이어 개회선언 이준성 목사, 영상환영사 김재열 목사, 격려사 고석희 목사, 대표기도 전광성 목사, 찬양 실버선교합창단, 성경봉독 황규복 장로, 강사소개 이준성 목사, 설교 류응렬 목사, 봉헌송 이희정, 김영환 전도사, 봉헌기도 김일태 평신도부회장, 광고 유승래 목사, 축도 최창섭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뉴욕교협 회장 이준성 목사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49회 기교협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10:10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매일 밤 10시부터 10분씩 합심으로 기도하며 뉴욕선교대회를 준비했다”며 “이번 선교대회가 모두에게 도전과 위로를 받으며 은혜가 넘치는 천국 잔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말씀을 전한 류응렬 목사는 ‘복음으로 비상하라 (행 4:12)’는 제목으로 “지금의 교회의 미래, 기독교의 미래, 선교의 미래



2023 뉴욕선교대회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을 했다

를 걱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위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위기가 오면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일어나 위기를 뚫고 십자가 복음의 비상을 이룬 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인 줄 믿는다”며 “다시 한 번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새겨서 이 위기를 뚫고 비상의 날개를 펼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둘째 날, 류응렬 목사는 ‘강단이 살아나면 교회가 비상한다 (딤후 3:15-17)’는 제목을 통해 팬데믹 극복을 위한 설교와 묵회 중점으로 7가지를 제시했다.

마지막 날, 선니 문 선교사는 ‘왕게 드린 삶 (벤전 2:9-16)’의 제목을 통해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면 의미가 있으므로 잘 극복하면 좋은 것으로 이끄신다”고 격려했다. 또한 영적 순결을 강조하며 “선교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죄로 인해 더러워진 옷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흰옷으로 입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뉴욕교협 정기총회에서 투표를 하는 회원들

뉴욕과 뉴저지 교협 선관위 활동 시작 뉴욕 10월, 뉴저지 9월에 정기총회 개최예정

뉴욕은 10월, 뉴저지는 9월에 열리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첫 모임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다. 뉴욕교협은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모임을 7월 19일(수) 오전에 열었다. 헌법에 따라 10월에 열리는 총회 3개월 전에 선관위를 구성하기 위해 10월 23일 총회 기준으로 인해 7월 19일 모임을 연 것. 선관위는 총회 1개월 전까지 입후보 등록 공고를 언론공고 하게 된다. 뉴욕교협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3조(조직)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장 이만호 목사, 법규위원장 정순원 목사, 총무 유승래 목사, 서기 김홍배 목사, 증경회장(한재홍 목사, 이재덕 목사), 특별분과 유상렬 목사, 실행위원 송일권 목사, 이사회 조동현 장로, 평신도 손성대

장로로 구성되었다. 이날 모임은 3인(한재홍 목사, 유상렬 목사, 손성대 장로)이 위임하고 진행했다.

제1부 예배에서 회장 이준성 목사는 “재판에서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예바와 현을 사용하라(레위기 19:35-37)”는 설교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하며 공의와 정의를 통해 분명한 선을 지키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라”는 말씀을 전했다. 제2부 회무는 선거관리위원장 이만호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뉴저지교협도 9월 열리는 총회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관위원은 이정환 목사(위원장), 신철웅 목사(총무), 하늘 목사(서기), 전경엽 장로(평신도 부회장), 류정환 장로(이사장)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등록 기간은 7월 19일(수)부터 8월 20일까지이다. 모든 서류의 허위 및 위조 발견 시 선관위의 청원으로 총회에서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복음으로사는교회 말씀사경회, 심상법 교수 “순례자 아브라함” 주제로 인도

뉴저지 복음으로사는교회(담임 김세중 목사)는 설립12주년을 맞이하여 심상법 교수(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교수, 부총장)를 강사로 7월 7일(금)부터 3일간 말씀사경회를 열었다. 심상법 교수는 “순례자 아브라함”이라는 주제 아래 ‘순례: 머무름과 떠남’ (히브리서 11:8-16, 창 11:27-12:9), ‘신뢰와 시련: 환경’ (창세기 12:10-20), ‘가치와 사랑의 시험: 관계’ (창세기 13:1-18), ‘의심에서 언약으로’를 제목으로 각각 설교했다.

김세중 목사는 이번 말씀사경회 주제를 언급하며 “하나님의 꿈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연약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열방의 아비로 세우시며 그의 작은 가슴속에 광대한 하

나님의 꿈을 심으시는 하나님, 주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의 작은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시련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시련을 통과하여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때로는 시련을 만나 실패해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채찍질로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전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말씀사경회 강사 심상법 교수



도미니카 축구 선교 사역 중 현지 어린이들이 축구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프라미스교회 ‘4/14 윈도우 사역’ 도미니카 축구 선교 진행 “아구의 나라에서 축구로 복음을 전하다”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는 ‘4/14 윈도우 사역’, 전세계 4-14세까지의 연령대 18억 5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 선교사역을 2009년에 시작했다. 이번 도미니카 축구 선교에는 7월 8일(토)과 15일(토), 두 번의 축구 선교를 위하여 7월 2일, 프라미스교회 컨츠성전에서 파송식을 가지고 장년 88명, 청소년 45명, 총 133명을 자비량으로 파송했다. 1진 장년 47명과 청소년 45명, 2진 장년 41명의 선교팀, 총 133명이 이번 선교지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사역을 감당했다.

1차 경기는 7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산크리스토폴의 ‘판아메리카노’ 축구경기장에서, 2차 경기는 7월 15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산티아고의 ‘시바오’ 축구경기장에서 열렸다. 두 경기 모두, 프라미스 선교팀과 현지교회들이 함께 셉겼다. 선교팀은 경기장에 입장하는 어린이들과 부모들에게 교회에서 떠나기 전 ‘1불의 기적’ 헌금으로 준비한 선물, 만화선경과 물, 과자 등이 든 백을 선물했다. 이번 선교에 함께 나간 청소년 선교팀은 축구 경기를 셉길 뿐 아니라, 지역 두 교회를 방문하여 파워하우스(어린이교육 프로그램)를 셉기고, 팜 흘리며 노방전도를 했으며 4/14er들과 함께 스포츠, 성경공부, 영어교육 등의 사역을 감당했다.

프라미스교회 축구선교는 그동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파나마, 멕시코, 이번 도미니카까지 중남미 8개국 18개 경기장에서 50만 명의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또 TV 중계방송을 통해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파해 왔다.

(정리: 김재상 기자)

뉴욕한인원로성직자회, 광복절 78주년 기념식

뉴욕한인원로성직자회(회장 한문수목사)는 광복절 78주년 기념식을 오는 8월 7일(수) 오전 10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목사)에서 개최한다.

▲문의: 뉴욕만나교회 917-750-8174

새생명선교회, 암환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

새생명선교회(대표 심의례 전도사)는 9월 3일(주일) 오후 5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개최한다. 특별강사로 성갑제 박사(유방암 전문)가 “여성 호르몬과 유방암”이라는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며 팬플룻찬양선교단을 비롯한 성악가들과 연주자들의 공연으로 음악회가 진행 될 예정이다.

▲문의: 심의례 전도사 718-288-2447

하나선교회, 주방 용기, 헌 옷, 신발 등 수거

하나선교회(대표 김형욱 목사)는 뉴저지 패터슨에서 1998년부터 저소득층 어린이와 노숙자를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이다. 사역 비용 충당을 위해 헌 주방 용기, 헌 옷, 신발 등을 수거한다. 북부뉴저지, 뉴욕 Rockland 카운티, 웨체스터 지역은 연락시 픽업이 가능하다. 웹사이트: www.hanamission.org

▲문의: 김형욱 목사 201-693-3893, 강진경 718-440-6326, hanamission@gmail.com

사랑의 집, 감사의 날 행사

사랑의집(원장 전모세, 셀터사역) 감사의 날 행사가 사랑의 집 뉴저지 센터에서 8월 5일(토) 오전 11시에 가진다. 순서는 감사예배, 점심, 텃밭 체험과 수확나누기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문의: 718-216-9063

2023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뉴욕교협(회장 이준성 목사)은 7월28일(금)-30일(주일)까지 2023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를 관중 목사(시애틀형제교회 담임)를 강사로 하크네시아 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개최한다. 금, 토 오후 7시30분, 주일 오후 5시이며 집회 한 시간 전에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차량이 운행된다. 또한 동일 시간에 할렐루야 복음화 어린이 대회가 열린다.

▲문의: 교협사무실 718-279-1414

뉴욕한인변호사협회, 무료 정기 법률상담

뉴욕한인변호사협회는 내달 1일 오후 4-8시 정기 무료 법률상담 행사를 가진다. 이번 행사에 백이백 변호사, 이선재 변호사, 정권선 변호사 등이 상담할 예정이다. 상담예약은 30일 오후 2시까지 이메일 kalagny.probono@gmail.com 또는 833-525-2469(833-KALAGNY)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833-525-2469

영생장로교회, 월드비전어린이합창단 [PA]

영생장로교회(담임 백운영 목사)는 8월2일(수) 월드비전어린이합창단(구 선명화어린이합창단)의 찬양, 부채춤, 국악 등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시간을 갖는다.

▲문의: 215-542-0288

피종진 목사 7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 1(토) 오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308) 주회 : 신문방송 TV
- 3(월) 오후 한일산기도원 (원장 이영금 목사) 주회 : 한미연합부흥사회의회 (대표회장 이구범 목사) 010-2238-3999
- 4(화) 오후 서울 삼각산 선지기도원 (원장 김승자 목사)
- 주회 : 한국부흥사회 (대표회장 정민철 목사) 010-3224-2345
- 5(수) 저녁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 주회 : 한국기독교부흥사단체 총연합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상인총재 한영호 목사, 대표회장 김우경 목사)
- 천안 위대함목회자 영성원 (원장 유재민 목사) 010-6352-0691
- 6(목)~7(금) 세계 기독교성지지도자 선교협의회
- 10(월) 오후 (대표교단 정상 전 국무총리, 이사장 피종진 목사)
- 11(화) 오전 지.선.협. 국가구국교회, 선민중앙교회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 12(수) 오후 서울 정동 주성령교회 (전숙희 목사) 010-8775-7479
- 17(월) 저녁 서울 임마누엘교회 (최옥순 목사) 010-2213-4448
- 18(화) 오후 서울 강남순종교회 (오승준 목사) 010-3942-8434
- 19(수) 오후 송추 반석교회 (고권능 목사) 010-2391-3001
- 19(수) 저녁 파주 엘리야 기도원 (김일분 원장)
- 주관 : 한국교회연합 부흥사회 (총재 서재은 목사) 010-7142-2548
- 20(금) 오후 충주 금식기도원 (원장 고충만 목사) 010-3709-4968
- 24(월)~26(수) Mission Association MT
- 27(목) 오전 후 서울신학교 (회장 김준환 목사) 주회 : World 기독교총연합회 (이사장 정진희) 010-7567-8291
- 28(금) 서울강남남석교회 (강사량 목사) 010-8331-3431
- 31(월) 이산 새벽별교회, 미래클 국제선교회 (대표 김수아 목사) 010-9082-9030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동양선교교회 창립53주년 기념 부흥회에서 류응렬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사진 왼쪽위는 교회 관계자들이 창립53주년을 축하하고있는 모습

동양선교교회 창립53주년 기념 부흥회

강사 류응렬 목사, “하나님 안에서 명품 인생을 살자”

동양선교교회(OMC 담임 김지훈 목사) 창립53주년 기념 부흥회가 류응렬 목사(와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갈망’이라는 주제로 22일(토)과 23일(주일) 열렸다.

김지훈 목사는 “지금까지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OMC가 봉사, 선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23일(주일) 오전 9시30분 예배시간에 열린 부흥회는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 동양선교교회 파송선교사인 고 이원철 선교사(캐나) 영상소개, 김은서 어린이의 성경봉독이 있었다. 이어 류응렬 목사(와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가 ‘은혜의 갈망(사 3:3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류응렬 목사는 “본문말씀은 삼갈이란 자의 이야기다. 그는 우상을 섬기는 가정의 아들이었다. 우상을 섬겼던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이고 그의 배경과 환경과 관계없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를 사용하신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류 목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지휘봉이 들려있다. 삼갈은 자신에게 들려있던 지휘봉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OMC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쓰임 받았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우리에게 주어진 지휘봉을 올려드리면 그것을 통해 명품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지난 53년 동안 OMC가 아름답게 사용되었다. 지난 53년의 아름다운 역사보다 OMC의 미래가 더 찬란하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교회되기 바란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단한번의 인생을 나의 최고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을 맡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류응렬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예배 후 창립 53주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심투게터’ 찬양경연대회를 가졌다. (박준호 기자)

삼갈은 자신에게 들려있던 지휘봉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OMC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쓰임 받았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우리에게 주어진 지휘봉을 올려드리면 그것을 통해 명품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지난 53년 동안 OMC가 아름답게 사용되었다. 지난 53년의 아름다운 역사보다 OMC의 미래가 더 찬란하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교회되기 바란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단한번의 인생을 나의 최고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을 맡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류응렬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예배 후 창립 53주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심투게터’ 찬양경연대회를 가졌다. (박준호 기자)

이승만 대통령 서거 제58주기 기념 추모식

“하나님이 시대를 위해 준비한 대통령, 자지손손 기억해야”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LA(회장 최학량 목사)가 주최한 이승만 대통령 서거 제58주기 기념 추모식이 19일(수) 오전 11시 용수산에서 열렸다. 최학량 목사 인도로 시작된 1부 추모예배는 김영구 목사(AKUS 한미연합 남가주 지회 회장)가 기도했으며 이승순 부회장이 성경봉독했으며 우남과이어가 합창했다. 이어 송정명 목사가 ‘시대를 위해 준비시킨 지도자(왕상 3:10-1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송정명 목사는 “이승만 박사는 대통령이 된 다음 부귀영화를 누리기보다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지도자였을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시대를 위해 준비시켜주신 분이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라고 말했다. “그는 한성형무소 수감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조국이 바로서기위해서는 기독교정신에 부합하게 살아야 영국등과 동등한 위치에 설 것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남겼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신앙 바탕으로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다.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53년 10월에 맺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는데 앞장섰다. 2세, 3세에게 우남 이승만 박사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

도록 이러한 역사가 전해주는 어른들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노래를 함께 불렀으며 최영봉 목사(남가주교협 회장)가 축도했다. 최학량 회장은 “이 행사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과분다 공이 많은 분이요. 이승만은 당대 건줄만한 인물이 없었다. 4.19 주동자 50명이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동참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4.19 당시 4.19 주동자들에게 ‘가장 용기 있는 젊은이여 불의 앞에 가만히 있으면 젊은이겠는가’라며 칭찬했다. 그는 결국 아야했으며 하와이로 망명하여 생활하시다가 서거하셨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오늘 우리는 자손만대에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반공정신, 한미동맹, 기독교정신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애국동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승만 박사의 ‘몽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는 정신을 기억해야 한다. 이승만기념사업회가 앞장서 우리 자지손손에게 이승만 정신을 심어주는 일, 그리고 대한민국 국익과 동포사회 권익신장에 힘쓸 것”이라 말했다. (박준호 기자)



이승만 대통령 서거 제58주기 기념 추모식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최석호 가주상원 출정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최석호 가주상원 출정식 가져

“동포사회 정치적 신장을 위해 당선 돼야”

최석호 주상원 출정 축하행사가 22일(토) 오전 11시 45분 용수산에서 열렸다. 김영구 목사(AKUS한미연합회 LA 회장) 사회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최학량 목사(이승만대통령 기념사업회장)가 기도했으며 윤 에스더 목사가 미국국가와 애국가를 부른 뒤,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었다. 최석호 의원은 “이번에 출마하게 된 지역구는 상원 37지구로 어바인 지역 14개시로 구성되어있고 백만여명이 살고있다”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지난 98년 무명인 제가 교육위원으로 어바인에서 24년간 선출직 공직자로 봉사했다. 그리고 시의원, 어바인시장, 거주하원 3선 등 모두 두차례 이상 당선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상원37지역은 6년간 봉사했던 하원 68지구가 속해있던 지역이다. 현직의원으로서 뛰고 있는 데이브민이 연방의원에 출마했다. 현재 유권자 수가 민주당에 비해 3%안팎으로 부족하다”며 “한인동포들에게 후원을 부탁하는 이유는 동포사회

에서 정치적 신장을 해야 한다고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인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석호 전 의원은 하원으로 의정활동할때 ‘도산안창호의 날’, ‘유관순의 날’, ‘홍명기의 날’, ‘태권도의 날’, ‘캘리포니아 김치의 날’ 등을 발의하여 캘리포니아정부가 제정하는데 앞장섰다. 한편 이날 이병만 장로(출정식 준비총괄위원장)가 환영사했으며 미미송 박사(전주지사겸미서/APD), 김봉현 (LA 상공회의소회장), 한기형 목사(CBS-TV 기독교 방송 대표), 류달영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가 축사했으며 테너 최원현 씨가 특송했다. 이어 유수연 ABC 교육위원, 광도원 회장(도산안창호재단), 외 많은 이들이 최석호 의원 지지발언을 했다. 이어 박세현 목사(AKUS 한미연합회 LA 사무총장)가 최석호 의원 당선을 위한 기도했으며 고향의 봄을 함께 부른 뒤 윤건상 목사 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월드미션대학교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

“하나님은 큰그릇이 아닌 깨끗한 그릇을 쓰시”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20일(목) 오후 7시30분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피아워십의 리더인 이동선 전도사의 찬양인도로 시작되었으며 이날 참석한 모든 이들이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동선 전도사는 눅6:46-49 말씀을 전했다. 이동선 전도사는 “피아는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의미로 Faith In Action의 약자”라며 “온라인미디어 사역에 대한 부담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2019년 2월9일 5명이 결성이 되어 유튜브로 사역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첫 영상 조회수가 4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갔다”며 “코로나로 인해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걸음한걸음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했다. 이 전도사는 “이찬수 목사님이 하나님은 큰 그릇을 쓰시지 않으시고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셨다. 그 말씀대로 피아의 사역을 정결한 마음으로 하려고 한다. 사역

은 잘하는 것 보다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피아워십은 넌크리스천들에게도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Way Maker’,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여기 계시기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가 일하시네’ 등을 불렀다. 이날 집회는 이동선 전도사 마침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러빙워십 찬양팀이 찬양인도하고 있다

서부교계 기사판

나성순복음교회 유수연 교육위원 초청 예배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는 유수연 ABC교육위원 초청 예배를 8월2일(수) 오후 7시30분에 갖는다. ▲ 문의: (323)913-4499

효사랑 시니어대학 가을학기 개강

효사랑 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 시니어 대학은 8월 8일부터 17주 동안 매주 화, 목요일 주 2회 오전9시-오후2시까지 선교회 강요실(7342 Orangethorpe Ave, #B-113, 115, 121)에서 진행된다. 이번 가을학기의 수업은 성경 파노라마, 음악, 난타, 건강 체조와 힐링 댄스, 하모니카, 미술교실, 스마트폰, 영어교실, 합창연습 등이다. 등록비는 월 100달러. 점심이 제공된다. ▲ 신청 및 문의: (714)670-8004, (562)833-5520

크렌셔장로교회 어부들과 함께하는 시니어찬양축제

크렌셔장로교회(담임 한현중 목사 1060 Crenshaw Bl, LA) 어부들과 함께하는 시니어찬양축제를 29일(토) 오후 4시에 갖는다. ▲ 문의: (213)407-1600

인랜드교회 기도세미나

인랜드교회(담임 안환 목사) 2023기도세미나가 28일(금)과 29일(토) 양일간 열린다. 강사는 노진준 목사(순회설교자)이며 일정은 28일(금) 오후 7시 기도와 영성, 29일(토) 기도와 하나님의 뜻, 오전 10시 중보기도 ▲ 문의: (909)622-2324

원하트 청년예배자 연합수련회

원하트미니스트리(대표 피터박 목사)가 주최하는 원하트 청년예배자 연합수련회가 ‘예배와 삶을 연결하다’라는 주제로 28일(금)부터 30일(주일)까지 아주사피서피대대학교 웨스트캠퍼스에 위치한 듀트 스튜디오 커뮤니티에서 열린다. ▲ 문의: (213)347-5080

밸리주하나교회 부교역자 모집

LA 북부에 위치한 밸리주하나교회(담임 오정택 목사 8131 Tampa Ave, Reseda, 91335)는 해프타임 찬양 및 행정분야 부교역자를 찾고 있는데 자격은 교단과 관계없이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자, 20-30대 후반을 선호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www.joohana.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서류제출 및 문의: valleyjoohana@gmail.com



권오군 목사 저서 진정한 자아 출판기념회에서 권오군 목사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권오군 목사 저서 <진정한 자아> 출판기념회

권오군 목사(성상장로교회 담임) 저서 <진정한 자아> 출판기념회가 23일(주일) 오후 5시 카페 니모에서 열렸다. 권오군 목사는 “우리들의 진정한 자아는 영혼의 몸을 입고 있기에 이 세상에서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겪게 된다. 하지만 슬프고 괴롭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느낄 수 있다”며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와 상처 등으로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하지만 성령을 입게 된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행상으로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셨다. <진정한 자아>를 출판하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통해 책을 보는 자들의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부르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 한다”고 말했다. 권오군 목사 사회로 열린 출판기념회는 황순정 목사가 축사했으며 조이스권이 특송했다. 이어 김선미 선생, 김현주 사모가 독후감을 발표했으며, 로젠 장 권사가 독후감 발표와 함께 <생각속의 지우개> 시를 낭송했다. (박준호 기자)

“러빙워십...하나님 앞에 무릎꿇는 믿음 이어갈 것”

러빙워십(대표 조셉 리 목사)은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를 19일(수) 오후 6시30분 세리토스에 위치한 러빙워십스튜디오에서 가졌다. 조셉 리 목사는 “러빙워십스튜디오는 예수그리스도를 꿈꾸고 찬양하고 높이고 그 안에 주신 달란트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은 누구든지 찬양하는 것을 꿈꾸며 마련했다”

며 “한국교회는 믿음의 조상들의 순교의 피로 세워졌다. 그 복음을 통해 이 자리까지 이어졌다. 예수운동을 일으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 무릎 꿇는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 러빙워십이 만들어졌다. 한손에 복음, 다른 한손에 이 땅을 변화시키고자 열정으로 간절히 무릎 꿇어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집회가 목소리만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닌 영혼의 찬양, 나부터 성령의 임재를 깊이 누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피아워십과 러빙워십이 찬양을 인도했으며 조셉리 목사가 사도행전 20:24을 설교한 뒤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을 불렀다. 이날 집회는 한기형 목사(CBS기독교방송 대표)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교 생명지키기 7대 선언문'을 함께 제창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힘을쓰기를 다짐했다.

라이프호프 이사장인 임용택 목사는 "자살은 생명 질서가 깨어진 결과"라며 "한국사회의 높은 자살률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상교회 목회자나 노회가 허락한 전도 목사 등에 의해 이종직이 가능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목회 계획서를 포함한 이종직 신청서 등 소정의 서류를 노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이종직 목회자는 정기적으로 노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노회는 이들의 건강한 목회와 정체성 및 영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를 마련하는 등 목회자들을 다방면에서 도와 예정이다.

“생명 질서 회복이 자살예방의 효과적인 대책”

21일 '제11회 한국교회 생명보듬주일 선포식' 개최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라이프호프·대표 조성준 교수)가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1회 한국교회 생명보듬주일 선포식'을 개최했다.

주간에 시행하는 생명보듬주일마다 한국교회에 설교문과 기도문, 자살예방 교육재, 장례예식서, 포스터 등을 공유하고 생명존중문화 확산 운동을 펼쳐 오고 있다.

라이프호프는 매년 부활절과 세계자살예방의 날(9월 10일)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기독교



중화권 교회, 24일 한국 모여 영적 부흥 '벤치마킹'

제32회 OCCK성회, 24~31일까지

중화권 교회가 한국에 모여 한국교회 특유의 '성령 충만'과 '영성'을 벤치마킹하며 중화권의 영적 부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회) 순회보(세계로교회) 주성민(세계로금란교회) 목사가 나선다. 중화권 목회자로는 장한업(타이베이순복음교회) 린칭종(타교회) 께자오신(핀통교회) 정부차이(리뉴얼크리스천교회) 구지원(뉴라이프교회) 양닝야(타이페이트루스루터교회) 목사 등이 나선다.

올해로 32회째 열리는 OCCK성회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이후 3년 만에 재개됐다. 행사는 한국OCCK중화사역본부(총재 이영훈 목사)가 주최하며 대만 바라마니스 트리(Bara Ministry)가 협력한다.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따르면 이번 성회에는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 9개국 약 1500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다. 올해 성회 주제는 '새 시대, 새 기쁨부으심, 새 그릇'이다.

끼쳐 전 세계 중화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매년 중화권 교회가 부흥하게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참석하는 중화권 목회자와 성도들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시대, 새 그릇으로 준비되고, (성령으로) 새로운 기쁨 부으심을 받아 성령 충만해지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으면 한다"며 "이들의 사역 현장에서도 놀라운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캔송키즈, 여름 방학 맞아 아웃리치 나선다

1박 2일 간의 여름성경캠프를 진행 예정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제자훈련 과정을 거쳐 선발돼 찬양으로 복음을 전해 온 '캔송키즈'가 오는 24~25일 국내 단기선교(아웃리치)에 나선다. 캔송키즈는 매년 여름 방학 기간 아웃리치를 통해 지역 사회 복음화와 사회적 섬김의 사명을 실천해왔다.

특히 이번 캠프에 참가하는 80여 명의 주일학교(유치부~고등부) 학생들은 현지 교회 목회자들과 사모들이 초청한 아이들로 90%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새신자들이다.

예장통합 "이종직, 목회의 형태"로 인정하고 지침 정립

자비량목회연구위원회 이종직 지침 보고서 9월 총회 보고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 총회가 이종직(자비량) 목회의 정의와 요건을 확립해 산하 교회에 보급할 예정이다. 예장통합은 지난해 제107회 총회에서 미자립교회(자립대상교회)에 한해 이종직 목회를 허락했다.

라 목회의 한 방법이라는 데 방점을 두는 것이다.

홍정근 위원장은 "예장통합이 지난해 이종직 목회를 통과시켰지만 그동안 이종직 목회자는 많이 존재했다. 목회에 대한 남다른 소망이 있기에 이종직을 하면서도 목회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들이 당당하고 자신 있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를 만드는 데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린 교수선교사' 전국 기독교... "다음세대 신앙 바로 세우자"

전대선, 제38회 전국교수 선교대회 열려

"다음세대인 우리 학생들이 신앙을 지키기 힘든 시대잖아요. 저희를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박원권 계명문화대 광고디자인학부 명예교수) "학생들과 기독교 문화의 차이를 짚겠습니다. 이들의 신앙을 끌어올리고 싶은 열망은 가득한데 현실적으로 어렵네요."(장시웅 동의대 컴퓨터공학 교수)

현장에서 다음세대를 가르치는 기독교수들은 교회와 떨어진 '다른 세대' 다음세대에 대한 위기감을 체감하고 있었다. 선교학에서는 기독교인이 2~5% 이하면 미전도종족 선교지라 여기는데 한국 캠퍼스가 '미전도종족 선교지'로 전락한지는 오래된 얘기다.

20일 충북 충주 한국교통대(총장 윤승조)에서 개막된 '전국 대학교수 선교대회' 전국 각지에서 온 200여명의 기독교수

들은 팬데믹 후 캠퍼스 사역 전략을 배우기 위해 이 곳을 찾았다.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전대선·회장 박신현)가 주관한 선교대회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 60:1)를 주제로 21일까지 이를 일정으로 열린다. 대회는 다음세대의 신앙 실태와 성령부흥 물결에 따른 동성애 현상 등을 주제로 한 강연부터 캠퍼스 사역 활성화를 위한 세션별 세미나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캠퍼스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확인했다. 정인모 부산대 독일문학교수는 "교수로서 전공 연구나 교육도 해야 하지만 먼저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캠퍼스 사역자의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원권 계명문화대 광고디자인 명예교수는 "선교대회를 통해 다음세대인 학생들의 신앙이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독교수들이 선두에 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ew York, Hawaii, and Mexico. Includes church names,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35)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젊은 세대에도 희망은 있는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끼어 있는 7월 첫째 주일에는 대부분 교회들에 자리가 비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민교회들의 특성상 모처럼 연휴라서 여행을 가거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 주일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고 지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나는 멀리서 찾아온 자녀들과 함께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엘에이의 다운타운으로 갔다. 시티즌교회는 교회의 강당을 빌려 모이는 교회인데 얼마나 모일까 반신반의하며 예배 시간에 맞추어 도착하였다. 파킹장에서부터 젊은이들이 안내를 하고 있었다. 강당으로 가는 길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당을 향하는 젊은 사람들을 따라 가면 되었다. 밖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으로 분주했다.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듯한 커피와 도넛을 제공하는 텐트를 지나 10분 전에 강당 안으로 들어갔다. 약 800여 석 되어 보이는 자리의 절반 정도가 차 있었다. 평상시에는 10시와 12시 두 번에 걸쳐 예배를 드리는데 여름철에는 11시에만 예배가 있다고 한다. 찬양팀이 찬양을 시작하고 10분이 지나갈 때에 거의 80% 정도가 차고, 15분이 지날 때에는 90% 이상의 자리가 찼다. 어디에서 몰려오는 젊은이들의 활기찬 예배에 나도 모르게 감격이 되었다. 이들의 면면을 자세하게 살필 수는 없었지만 젊은이들이 주축으로 모

이는 영어권 교회를 보았다. 젊은 세대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더욱 팬데믹 이후 교회에 사람이 모일까 생각했던 우리는 잘못처럼 느껴졌다. 젊은 세대에도 희망은 분명 보이는 것 같았다. 젊은 세대에도 희망이 보이는 것은 아직도 교회에는 젊은 이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이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40대 이하로 보여졌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참석하는 부부도 많이 보이고, 아직은 미혼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절반 정도로 보였다. 회중의 90% 이상은 아시아인으로 보여지고 대부분이 한국계 젊은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였다. 대표적인 아시아아메리칸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배의 시작부터 여성 리더가 찬양과 함께 워십리더로 인도하였고 광고시간에 리드목사 제이슨 민 목사가 나와서 커뮤니티광고와 함께 초청강사를 소개하였다. 여름 4주만에 걸쳐 특별 초청강사들이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시대를 관통하는 주제를 두려움없이 다루고 있는 것이다. 시티즌교회는 “우리의 비전은 도시 속의 도시, 복음으로 변화된 공동체로서 지금 여기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시티즌교회의 홈페이지에는 교회의 비전을 이렇게 적고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겸손과 사랑, 연민, 이웃에 대한 진정한 관심으로 특징지어지는 대안 공동체, 즉 ‘언덕 위의 도시’로 부

름받았다고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개인주의, 자기계발, 소비주의의 우상 숭배가 예수님이 염두에 두셨던 공동체를 가꾸려는 모든 시도를 위협하는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인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도시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 딜레마에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도시의 가치에 동화되어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고유성을 잃거나, 도시에서 완전히 벗어나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는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른 것을 염두에 두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그의 백성에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라고 명령하심

해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강조하고 있다. “복음을 담은 사역”, “사람 우선”, “전신자 제사장주의”, “진정성 있는 관계”, “전인적 신앙”, “불확실성과 의심을 포용하기”라고 밝히고 있다. 복음을 담은 사역이란 “은혜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모든 일에서 은혜를 양육하고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치심과 비난이 없는 문화, 서로의 인간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언어로써 선포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그보다도 말한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선언이 담겨있다. 이는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신앙인이라는 어른들의 위선적인 삶이라는 것을

열쇠는 더 많은 예배나 설교를 듣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깊은 영적 우정을 쌓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발표하고 있다. 전인적 신앙에서는 “우리는 제자도를 한 사람이 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더 인간적인 사람이 되는 과정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회적, 정서적, 영적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통합된 신앙을 추구합니다”라고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 의도는 분명한 것 같다.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으로 만들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통합된 신앙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가치로 언급하고 있는 불확실성과 의심을 포용하기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적합한 자세로 다가서고 있음을 보게 한다. 절대 진리를 선포하고 수용하라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들도 함께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도 겸손과 호기심의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리드목사인 제이슨 민은 펜실베이니아대학을 나와 하바드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를 마치고 찬양팀을 인도하며 교회에서 섬기다가 이 교회를 맡게 되었다. 이 교회는 엘에이의 다운타운에서 Sovereign Grace Church 라고 시작하였는데 개척을 하였던 알렉스최 목사가 당시 찬양팀을 인도하며 신학교를 다니던 제이슨민에게 교회를 맡기고 떠났다. 그 후 교회는 교회명을 시티즌교회로 변경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젊은 세대가 모이는 교회,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취해 가고 있는 아시안 젊은이들이 주일에 교회로 모여 신앙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이 시대 거센 도전의 물줄기 속에서 세워가는 이런 교회들이 있는 한 내일도 희망이 있어 보인다. 확실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dr.yongcho@gmail.com



수 있을까요?

교회가 시대에 당면한 문제들을 만날 때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듯이 그 문화에 동화되어버리거나 세상과 떨어진 성을 쌓고 떨어져서 회피하기 쉬운데 도전을 직시하며 무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애쓰고 있는 것이다. 예배의 찬양 가운데 우리 세대의 교회에서 항상 부르는 찬송가는 없었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과 성경을 봉독 할 때 함께 서서 말씀을 받자고 하는 자세는 역사적 신앙의 유산과 말씀의 권위를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교회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

알고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선포인 것이다. 사람 우선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프로그램으로 포장하거나, 정치적으로 평가되거나 직책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귀한 사람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만인제사장직에 대한 선언은 특히 젊은 세대에 모든 교인들의 은사와 열정을 교회 경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과 성경을 봉독 할 때 함께 서서 말씀을 받자고 하는 자세는 역사적 신앙의 유산과 말씀의 권위를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교회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27강(신명기 10-26장) 모세의 2차 설교를 중심으로 (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명하신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신 20:3,4)고 선포하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돌아갈 자

모세는 하나님께 명하신대로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그리고 '두려워서 마

음이 허약한 자'들은 전쟁터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신 20:5-8). 한편으로는 전쟁임에도 이러한 자들에 대한 배려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자들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염려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불안과 낙심이 생기게 될 것에 대한 조치이기도 합니다(신 20:8).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대로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 땅 외의 성읍과는 가능한 화평하고 만일 전쟁을 해야하면 남자는 죽이되 여자와 유아들과 가축과 성읍은 탈취물로 삼으라고 합니다(신 20:9-15). 그러나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 땅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서는 안 됩니다(신 20:16). 하나님이 명하신대로 진멸해야만 합니다(신 20:17). 왜냐하면 생존한 이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



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신 20:18).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과 관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

모세는 앞서 지시한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 외에도 '민법'과 '생활법' 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당시 주변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지는 구별된

법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포로 중에 잡힌 여인에 대해서(신 21:10-14), 장자에 대해서(신 21:15-17), 완약하고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신 21:18-21),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시체에 대해서(신 21:22,23), 길 잃은 짐승과 주인없는 물건에 대해서(신 22:1-4), 남자와 여자의 의복을 바꾸지 말것에 대해서(신 22:5), 어머니와 새끼새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신 22:6-8),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것에 대해서(신 22:9), 소와 나귀를 섞어 밭을 갈지 말것에 대해서(

신 22:10), 양 털과 베 실을 섞어 짜지 말것에 대해서(신 22:11), 입는 겂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 것에 대해서(신 22:12), 결혼한 아내의 처녀인 문제에 대해서(신 22:13-21), 유부녀와 동침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가 성 안에서 남자와 동침했을 때 그리고 성 밖에서 강간을 당했을 경우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남자와 동침했을 경우에 대해서(신 22:22-29), 어머니와 동침한 경우에 대해서(신 22:30),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신 23:1-8),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부정을 제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진영을 거룩히 해야 함에 대해서(신 23:9-14), 주인을 피한 종에 대해서(신 23:15,16), 장기와 남창에 대해서(신 23:17,18), 돈을 꾸어주는 문제에 대해서(신 23:19,20), 하나님께 서원한 문제에 대해서(신 23:21-23),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대해서(신 23:24,25), 아내를 맞이하고 이혼하고 재혼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신 24:1-5), 멧돌을 전당 잡지 말아야 함에 대해서(신 24:6), 사람을 유괴한 자에 대해서(신 24:7), 나병 환자에 대해서(신 24:8,9), 전당물에 대해서(신 24:10-13), 품꾼과 품삯에 대해서(신 24:14,15), 죽임을 당할 죄에 대해서(신 24:16) 그리고 객이나 고아, 과부를 돌보며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할 것에 대해서(신 24:17-22) 모세는 반복되는 '영적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생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들어야 할 것과 듣고 싶은 것 마 11:16-19 찬 510장

예수님은 그 세대를 고발하시며 비유로 '장터에 앉아서 노는 아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상황을 제시하시며 예수님은 이유를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음악 연주나 슬픈 노래를 듣는 청중의 마음속에 그 음악이나 노래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이 해석하는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감흥도 감격도 없는 것이다." 이 비유의 끝에 예

수님은 팩트 폭격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금욕생활을 했더니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먹었더니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는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근본 메시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기준은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의 중심은 누구인가? 결정의 중심은 누구인가?

화 두 부류의 죄인 눅 7:48-50 찬 320장

세상에는 두 부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씻겨 드리던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은 마음속으로

이 여인과 예수님을 함께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입니다. 믿음 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 중의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의 특징은 '남은 다 아는데, 정작 교만한 자신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판단과 정죄의 말보다 은혜와 평안의 말이 더 많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수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 마 12:28 찬 438장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명분을 찾다가 '귀신들려 눈멀고 병어린 사람을 고친 사건'을 꼬투리 삼아서 예수님을 '귀신들린 자'로 몰아 가려 합니다. 예수님은 이 논쟁의 방향을 "나라"의 개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으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세워진 것이라고 말씀하십

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동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오늘도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목 예수님의 친구 눅 12:4-7 찬 90장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와 끼리끼리 놀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피조물의 존재 가치를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 가치처럼 동일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

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공포나 단순한 존경심이 아닌 '경외함'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7절). '두려움'의 대상을 바르게 구분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금 하나님 나라의 가족 막 3:31-35 찬 380장

하루는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시던 중,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시며,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그 자리에 앉은 자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와 자매요 모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를 나누지 않고도 가족 관계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

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모두 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혈연 지어진 가족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혈연 지어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따르는 '말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토 그가 누구이기에? 막 4:41 찬 96장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여러 비유로 말씀하신 후,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역으로 이동하는 중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겁에 잔뜩 질려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조하십니다. 이것은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에도 풍랑은 찾아오듯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풍랑과 같은 일을 만날 때,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랑 속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합시다.

교회음악 이야기(39)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주의 동산으로(The Lord's Garden)

교회사를 보면 크리스천 커뮤니티 안에서 그 시대를 특징 짓는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기 기독교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대가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 2장 43-47 절을 보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통용하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서로 모이기를 힘써 찬양하고 기도하며 복음으로 인한 산 소망을 삶에서 실천했던 순수한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된 시기였습니다. 이 때 미국 역사를 통틀어 지금까지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80%를 웃도는 가히 폭발적인 기독교 인구를 소유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이때 교회에서 갖는 신앙의 핵심 사상은 복음으로 인한 천국의 소망이 핵심을 이룬 때였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결과가 한쪽으로 조금 치우치는 면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당시 기독교인들은 초기 기독교 교인들처럼 복음으로 인한 소망을 깊이 품고 살았던 순수한 신앙인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당시 미국과 영국에 오가며 복음 전도자로 100만여 명의 신도들을 회심케 하며 가장 많은 활동을 펼쳤던 디엘 무디(Dwight Lyman Moody, 1837-1899) 전도자가 전했던 말씀과 또 당시에 만들어 불렀던 미국의 복음 찬송들에서 역력히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 성가 중 명곡 중의 하나인 '주의 동산으로(The Lord's Garden)'를 작사, 작곡했던 윌리엄 톰슨(William Lamartine Thompson, 1847-1909)의 찬양들이서 확연히 보여줍니다. 한편 그가 만든 찬송가 중 우리가 즐겨 부르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softly and tenderly Jesus is calling)"를 보면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1899년 무디 전도자가 거의 죽음에 가까이 이르자 많은 성도가 찾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로 친절하게 그들의 문상을 거절했는데 톰슨이 찾아왔다고 하니 그를 보기를 위해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무디 전도자는 톰슨의 음악을 크게 존경했으며 미국과 영국에서 열린 그의 여러 전도 집회에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많이 찬양했다고 회상합니다. 이어 그는 "톰슨, 평생 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가슴에 깊이 새기라"며 톰슨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무디 전도자는 그 찬송의 가사를 부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에서의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동산으로' 찬양은 찬송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와 비슷한 가사와 음악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악 구성이나 화성 진행은 아주 간단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으로 인해 소위 서방교회에서 프로테스탄트로 나뉘어 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표면화되었던 중요 이슈는 10세기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던 서방교회의 문제들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교회의 부패, 제도 중심주의, 교회의 정치적 개입, 그리고 예배가 신비주의적으로 변형되어 가는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을 초기 기독교의 모습으로 되돌리려는 몸부림으로 인한 개혁의 발돋움이었습니다. 개혁 이후 종교개혁가들(루터, 칼뱅, 츠빙글리) 사이에서도 성례식과 유아세례에 대한 이슈 등 여러 교리적인 일들로 서로의 입장을 달리하며 교단별로 분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현상을 비추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미국교회의 교단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극심한 분열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Gender)에 대한 이슈로 인한 혼란함입니다. 이에 따라 같은 교단 안에서 교회가 갈라지고,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까지도 서로 서원해 저 가는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도 너무나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참 혼돈의 극치를 사회에 뿜어내고 있는 오늘날 교회를 보며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래리 크랩(Larry Crabb, 1944-2021) 이생은 마무리하며 유작으로 남긴 그의 책 "천국을 향한 기다림" 서문을 보면 "현 복음주의 문화에서 '기독교'로 통하는 것들 가운데는 성경과 사뭇 다르게 변형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를 따른다' 라는 말의 의미를 왜곡하여 그릇된 암시를 주는 그럴듯한 가르침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 얼핏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런 가르침은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는 모래 늪과 같다."라며 현 기독교 교회를 비판하며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현재의 삶을 용이하게 하고 윤택한 삶을 더 영위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느라, 정작 예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러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는 열정은 다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오늘날 사회가 너무 부유하고 편안함으로 인한 풍요의 극치가 뿜어내는 부산물들이 아닐까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다시 되돌려 미국의 교회사를 보면 2차 대각성 부흥 운동(1790-1850 년경)이 지나고 3차 대각성 부흥 운동의 시기인 1860-1900년 사이 미국교회는 영적 성장에 있어 모든 면이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는 1860년 남북 전쟁으로 인해 이념과 서로 갈라져 피폐한 정신, 이어지는 1873년 경제 대공황으로

이러한 역사적 현상을 비추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미국교회의 교단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극심한 분열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Gender)에 대한 이슈로 인한 혼란함입니다. 이에 따라 같은 교단 안에서 교회가 갈라지고,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까지도 서로 서원해 저 가는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도 너무나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참 혼돈의 극치를 사회에 뿜어내고 있는 오늘날 교회를 보며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래리 크랩(Larry Crabb, 1944-2021) 이생은 마무리하며 유작으로 남긴 그의 책 "천국을 향한 기다림" 서문을 보면 "현 복음주의 문화에서 '기독교'로 통하는 것들 가운데는 성경과 사뭇 다르게 변형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를 따른다' 라는 말의 의미를 왜곡하여 그릇된 암시를 주는 그럴듯한 가르침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 얼핏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런 가르침은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는 모래 늪과 같다."라며 현 기독교 교회를 비판하며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현재의 삶을 용이하게 하고 윤택한 삶을 더 영위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느라, 정작 예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러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는 열정은 다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오늘날 사회가 너무 부유하고 편안함으로 인한 풍요의 극치가 뿜어내는 부산물들이 아닐까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다시 되돌려 미국의 교회사를 보면 2차 대각성 부흥 운동(1790-1850 년경)이 지나고 3차 대각성 부흥 운동의 시기인 1860-1900년 사이 미국교회는 영적 성장에 있어 모든 면이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는 1860년 남북 전쟁으로 인해 이념과 서로 갈라져 피폐한 정신, 이어지는 1873년 경제 대공황으로

이러한 역사적 현상을 비추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미국교회의 교단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극심한 분열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Gender)에 대한 이슈로 인한 혼란함입니다. 이에 따라 같은 교단 안에서 교회가 갈라지고,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까지도 서로 서원해 저 가는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도 너무나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참 혼돈의 극치를 사회에 뿜어내고 있는 오늘날 교회를 보며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래리 크랩(Larry Crabb, 1944-2021) 이생은 마무리하며 유작으로 남긴 그의 책 "천국을 향한 기다림" 서문을 보면 "현 복음주의 문화에서 '기독교'로 통하는 것들 가운데는 성경과 사뭇 다르게 변형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를 따른다' 라는 말의 의미를 왜곡하여 그릇된 암시를 주는 그럴듯한 가르침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 얼핏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런 가르침은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는 모래 늪과 같다."라며 현 기독교 교회를 비판하며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현재의 삶을 용이하게 하고 윤택한 삶을 더 영위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느라, 정작 예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러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는 열정은 다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오늘날 사회가 너무 부유하고 편안함으로 인한 풍요의 극치가 뿜어내는 부산물들이 아닐까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다시 되돌려 미국의 교회사를 보면 2차 대각성 부흥 운동(1790-1850 년경)이 지나고 3차 대각성 부흥 운동의 시기인 1860-1900년 사이 미국교회는 영적 성장에 있어 모든 면이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는 1860년 남북 전쟁으로 인해 이념과 서로 갈라져 피폐한 정신, 이어지는 1873년 경제 대공황으로

이 곡이 쓰인 1800년대 말은 미국 교회사에 큰 획을 그은 가스펠송, 복음 성가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널리 불리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명성가 "주의 동산"을 통해 우리는 복음으로 인한 천국의 소망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이 고민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음을 드러내는 일 즉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더 깊이 생각하며 그 안에서 한 부분인 천국의 소망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내가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iyoon@wmu.edu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신교 편지

캄보디아

1. 예배사역

1) 어린이예배 (주일오전 9시)

어린이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는 아이들이 벨렐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학교사역이 선교와 신앙훈련을 위한 좋은 모판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각 반의 교사를 맡아서 가르치고 있는 선교사와 교사들이 아이들과 관계성을 맺으면서 교회 출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학부모들의 예배참석 반대도 비교적 적어서 학교를 나옴트 교회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벨렐학교가 크게 성장해 갈수록 선교의 열매를 더 많이 맺고 교회도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청소년 예배 (주일저녁 6시 30분)

청소년들의 믿음의 굳건함과 영적성장을 위해서 스텝들과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요한복음 중심으로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설교와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가르치며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도신경 함께 외우기, 앞으로 자립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헌금 교육, 새로운 찬양과 영역찬양 배우기 등 예배의 내실화와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스텝들(공기야 사역자 포함)을 대상으로 성경공부와 기도회 그리고 사역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공부를 통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 금요청소년 모임 (킹덤미션 준비)

조별로 킹덤미션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킹덤미션에서는 찬양경연대회를 위해서 2개 그룹만 참석하였으나, 올해는 모든 청소년이 참석하기 위해서 워십팀 2개, 찬양팀 1개, 마인팀 1개로 나누어져 연습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학교 보충수업 들로 인해서 모이기 어려운 팀들이 금요일 저녁에는 함께 모여서 연습함으로써, 바쁜 학교생활들로 느껴졌던 유대감과 예배참석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3. 동부개척장로회신학교 사역

평일에는 벨렐학교 수업들로 인해서 공간이 없어서, 토요일 하루 신학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신학교 학장님인 담임목사님의 예배학 강의를 통해 현재 우리 벨렐교회와 공기야 사역자가 사역하고 있는 프놈푹 교회의 예배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두 학생이 전체 벨렐교회 스텝들 앞에서 각자 교회의 예배를 발전시킬 방안들을 프레젠테이션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두 학생과 스텝들이 힘을 모아 더욱 은혜롭고 역동적인 예배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4. 학교건축 (7월 10일 현재까지)

지난 6월 8일에 건축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 6월 10일부터 회사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측량과 준비작업을 시작하면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5 월말에 시작되는 우기에 접어들면 6월부터는 매일 하루 한 번씩 강한 비가 내



리는데, 이상할 정도로 공사가 시작하고 나서는 6 월달부터 지금까지 비가 별로 오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기초공사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고 지금은 기초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기초공사는 한국에서 이제까지 봐 왔던, 땅을 파서 철근을 박고 시멘트를 타설하는 방법과는 크게 달랐습니 다. 8 미터의 콘크리트 파일 260개를 땅에 박아 심는 방식이었습니다. 지하에 암반이 전혀 없고, 물이 많은 흙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땅이어서 마치 밀가루 반죽에 나무젓가락을 찌듯이 기둥기로 누르면 속 하고 들어갔습니 다. 공사를 위한 우물을 추가로 파는 모습과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부모와 학생들의 출입을 위한 임시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콘크리트 파일을 다 박은 후에는, 다시 콘크리트파일 주변의 흙을 파서 작업할 공간을 만듭니 다. 그 후에는 콘크리트 파일의 헤드부(캡)를 깨뜨려서 파일 안에 있는 철근이 노출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파일들을 시멘트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그 위에 철근으로 거푸집을 만들어 시멘트를 타설하면 기초가 만들어지는 작업이었습니다. 철근을 엮어서 만든 각각 기초의 형틀이 만들어지면, 그 중간에는 건물의 기

둥이 올라갈 철근을 엮어서 고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시멘트 차량이 와서 시멘트를 각 기둥에 타설을 하면 1차로 기초가 완성되었습니다.

시멘트 타설 후에 바닥 기초가 굳어지면, 그 위에 노출된 철근기둥에 거푸집을 만들어서 기둥을 위한 시멘트 타설을 준비하고, 다시 시멘트 차량이 와서 타설하였습니다. 기초틀과 기둥틀 위에 기둥이 올라갈 시멘트 타설이 굳어진 후에는 다시 흙을 덮어서 평탄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도면에서 90 cm 높이가 되도록 흙을 채우기 위한 콘크리트 받침 작업이 진행되며, 흙을 채운 후에는 Ground Floor의 슬라브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의 모든 작업의 단계에서 회사관계자와 도면을 비교하며 작업진행을 확인하였고, 특히 시멘트를 타설하는 각 단계에서는 이일훈선교사가 도면과 대조하고 작업을 확인한 후 싸인 한 후에 작업이 실행되었습니다.

위의 모든 사역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기도를 해주시는 킨즈장로교회 담임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학교건축을 허락해 주시고 재정을 지원해 주신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일훈 박수영 선교사 가정 드림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인도네시아

▲ 종족명
타에 종족

▲ 인구
340,000명

▲ 종족의 종교 상황
이슬람 99.6%, 복음화율 0.4%

▲ 복음 매체
성경 번역 요청됨, 복음 매체 없음

▲ 종족 프로파일
유럽, 아시아, 호주로 가는 바닷길이며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슬라웨시에 살고 있다. 강 근처에서 농사를 짓고 산지에는 커피 농사를 짓는다. 노인을 공경하고 개인보다 가족을 중시하며 부지런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가족 유대감이 강해 입양을 잘한다.

▲ 기도제목

1. 타에어로 된 성경이 없는데 타에어로 복음이 전달 되도록
2. 타에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도록
3. 복음으로 인해 정령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타에 종족 사람들이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후두염

감기는 약을 먹으면 치료하는데 일주일도 걸리고 약을 먹지 않으면 7일이 걸린다는 말을 흔히 한다. 감기는 그 자체를 치료할 특

별한 치료약이 없고 대부분 저절로 낫기 때문에 증상치료만 하면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감기 후에 올 수 있는 폐렴과 같은 합병증에

대한 불안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S씨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전화 회사 교환원으로 일하고 있다. 3주전에 심한 감기를 앓고 나서 목소리가 쉬기 시작하더니 목이 잠겨 말을 할 수 없었다. 처음 감기에 걸렸을 때는 온몸이 쑤시고 두통이 있었는데 증상이 진행되면서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기 시작했다. 2주 전부터는 기침과 가래는 없어졌지만 목이 쉬어서 직장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증상이 심했다. 책임감이 강한 S씨는 목이 쉬어도 계속 회사에 나갔 다. 항생제를 먹었는데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자 병원을 찾아왔다. S씨는 특별한 질병 없이 건강한 편이었고 수술은 아기를 낳을 때 제왕절개를 한 것 밖에 없었다. 평소 담배를 하루 반갑 정도 피웠는데 감기에 걸리고 나서는 피우지 않았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 평소 직장에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목이 쉰 상태였다. S씨를 검진했다. 인두가 부어 있는 것 외에 폐음이나 심음은 모두 정상이었다. 후두경 상에서는 후두가 조금 부어 있는 것을 빼고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S씨는 감기 후에 오는 급성후두염으로 진단을 받고 증상 치료를 받고 1주일 후 목소리를

완전히 되찾았다.

급성 후두염(acute viral laryngitis)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 감기 후에 올 수 있고 소리를 지르거나 목을 많이 사용한 후에 점막의 출혈로 인해서 성대가 부어 생기기기도 한다. 감기 후에 오는 후두염은 때로는 세균에 의해 생기기도 하지만 항생제 치료도 별 도움을 못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란 가래가 나오고 목이 아픈 세균성 인두염 증상이 동반되지 않으면 일단 목을 쉬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며 가습기를 틀어주는 등의 증상 치료를 하면서 기다리면 된다.

만성 후두염은 만성적인 자극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 위산 역류에 의해서 성대가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부비강염에 의해서 콧물이 만성적으로 후두를 자극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 또 흡연이나 만성 알코올 섭취, 흡입 전신약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만성 후두염 치료는 원인을 파악해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원인을 제거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될 때는 보다 정밀한 이비인후과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문의:213-383-9388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라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일공부: 오후 7:30 다민족찬양: 매주(목)오후 4:00-7:00 Tel:(773)821-1122, estross@yahoo.com 6054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3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인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벨렐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디어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 오후 8:00 주일, 주일, 종교대학*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ingham, MA 01948
새생명인교회 담임목사: 정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E M 예 배: 오후 7:00(목) 새 생 예 배: 오전 6:00(월/목/토) 구 역 예 배: 각 구역별로 한국 학 교: 오전 10:20(주일) Tel:(850)423-9700, Cell:(213)703-9961 5502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	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공부: 오후 8:0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Tel:(703)681-9235, www.koreanp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	일칸사 제자들과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820-9049, www.je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영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주일 4부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254)635-1842(H), (254)501-4933(C) 1000 E. Vel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8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03)941-4447, www.mpcoc.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성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토) Tel:(253)536-6675, www.tacomapc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인/터/뷰

윤임상 교수(월드미션대 교수, 라크마 음악감독)

2023 LAKMA 우정과 화합 콘서트

8월5일 오후 7시30분 월트디즈니콘서트 홀에서 막 올려

“음악을 통해 사람을 돕는다(We are people helping people through music)”라는 슬로건을 갖고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어...

와 화합으로 통일된 한국과 튀르키예(Korea & Türkiye Unified in Friendship and Harmony)”라는 주제로 월트디즈니콘서트홀에서 ‘베르디의 레퀴엠’을 연주한다.



지난해 열린 공연 모습

“지난 2월 6일 시리아와 튀르키예(터키)를 강타했던 대지진은 21세기에 일어났던 가장 큰 자연재해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을 조율하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서로 도움이 되어주는 것은 소중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콘서트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로하는 의미로 이곳에 있는 튀르키예 커뮤니티와 한국 커뮤니티가 함께 우정을 쌓아가며 현지에서 지진 재해로 희생당한 자들을 추모하고 생존자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기 위한 연주회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소프라노 부주 한치(Burcu Hanci), 뉴욕메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한 명의 튀르키예 출신의 대표적 베이스바리톤 성악가 블락 빌지리(Burak Bilgili), 미주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성악가 테너 오위영, LA Opera에서 활동하고 있는 메조소프라노 줄리아 멧즐러(Julia Metzler)가 솔리스트로 무대에 오른다.

을 하나의 곡으로 편곡해서 피날레를 장식하게 된다고 소개한다. 끝으로 그는 “튀르키예는 우리 대한민국의 형제국가라고 불립니다. 지난 1950년 6월25일에 있었던 6.25한국전쟁 때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유엔군으로 파병을 했었고 당시 터키 정부는 3개의 보병대대, 1개의 포병대대와 수송부대로 구성된 5,000명의 여단급 전투부대를 파병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유엔의 요구에 응한 국가였다고 합니다.

나라가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위기 속에 우리를 도왔던 튀르키예입니다. 이번 연주회에 많은 분이 찾아오셔서 지진 피해로 상심에 빠져있는 튀르키예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튀르키예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하며 많은 분들의 참석을 당부했다.

절망의 시대를 이기는 기독교 변증

(3면에서 계속)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 놓인 과제와 막중함을 인식해야 한다. 절망의 시대에 변증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감각, 영원과 영광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도록 돕는 것을 포함한다.

강조했다. 이런 변증은 인간과 관련해서 훨씬 더 포괄적이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자주 인용하는 유명한 광세의 구절을 보자. 파스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세 단계 전략을 제안했다.

에 필요한 변증과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가 맞는 가장 큰 도전은 날카로운 반론보다는 훨씬 더 자주 만나는 무관심과 산만함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람과 소음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영혼의 문제에는 둔감하다.

느낀다. 삶이 무엇인지 고찰하는 순간에, 자연에서 휴식을 취하는 순간에, 사별과 상실의 순간에, 그 느낌은 매우 격렬하고 예측할 수 없다.

의 욕망에 대한 세속적 설명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세속적 사람들은 사랑과 정의의 속에 담긴 초월적 가치를 느끼는 인간의 선천적 인식과 결별하려 하지 않는다.

이 등장하는지를 잘 설명한다. 변증의 과제 중 일부가 바로 이런 모순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불신자가 세속적 세계관의 결과인 메마름과 감함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2. 복음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라

그리스 철학자들은 선과 진리와 아름다움이라는 세 가지 초월성을 놓고 논쟁했다. 현대 변증학은 주로 기독교가 진리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선함과 아름다움도 함께

인간은 종교를 경멸한다. 종교를 싫어하고 종교가 진리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두려워한다. 이에 대한 치료법은 먼저 종교가 이성에서 반하지 않고 경외와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절망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별을 보고, 음악을 듣고, 또 문학을 읽으며 깊은 종교적 갈망을 경험한다. 찰스 테일러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현대의 경향을 설명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절망의 시대에 변증이란 인간 찰스 테일러의 주장은 이것이다. 변증이란 현대인의 마음에서 때때로 표면화되는 “불안”을 견뎌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 마음속 깊은 갈망과 관련해서 복음을 위치시켜야 한다.

찰스 테일러는 이와 같은 긴장을 “현대성이 잠재우지 못한 경계”라고 부른다. 간단히 말해서, 세속적인 사람들이 세속주의 내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야 하는 종교적 자질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음에는 현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메시지가 있다. 우리는 굶주려 죽어가는 세상이 갈망하는 식량을 갖고 있다.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참여해야 할 고대 전통, 노력해야 할 초월적 대의, 그리고 영원히 누릴 영원한 영광이다.

Advertisement for '담임목사 청빙 광고' (Pastor Recruitment Advertisement) for the '살렛벤엘교회' (Salter Bethel Church). It includes details about the church's mission, requirements for applican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recruitment committee.

Advertisement for the '2023 3rd Healing Camp' (2023 3rd Healing Camp) titled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A Journey to Find Myself). It focuses on '내만의 마음근력 키우기' (Building My Own Mental Strength) and provides details on dates, location, and contact information.